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고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11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한국불교 축제 연등회 인류유산 등재 '가시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 11월 16일 등재권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문화행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가시화 되고 있다.

11월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날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를 결의했다.

이날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등회 보편적 가치 인정 '쾌거'
12월 결정… 유산 등재 확실시
원행스님 "12월 최종 등재 기대"
등재 시 韓 무형유산 21개 보유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기구의 결정이 받아들여기지 때문에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등회는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 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14~19일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결과는 12월 16~18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불교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민족과 함께한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권고 결과는 연등회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월에 열릴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연등회가 최종 등재되면 한국은 인류무형문화유산을 21개 보유하게 된다. 이중 불교 관련 무형유산은 영산재와 대목장이다. 이밖에도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관련 칼럼 6면〉



(재)한마음선원은 11월 15일 안양본원서 제32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어린이 신도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는 모습.

"마음 속 코로나 업식 지우는 연비를"

한마음선원 11월 15일 제32회 수계법회 봉행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안양본원서 제32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본원과 지원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수계 인원은 총 278명으로 수계자만 안양본원서 계를 받고 연비는 국내외 25개 각 지원에서 받았다. 특히 안양본원은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본원 법당 3층과 5층으로 나누어 동시에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교계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이렇게 작은 규모로라도 수계 법회를 진행하게 돼 각 지원의 신도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연비를 하는 스님들은 대행 큰스님이 내려주신 계를 지니고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더욱 마음을 내어 코로나 업식이 벗겨지도록 하자. 온라인으로 연비를 받는 분들은 비록 팔에 연비 자국은 남지 않지만 마음에 연비 자국을 남기자. 법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 한마음선원=노덕현 기자

군불교 총본산 '홍제사' 포교기지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11월 16일 불사 · 운영방안 공개

한국불교의 새바람, 군포교를 책임질 '군불교 총본산 계룡대 호국 홍제사'가 지역포교도 담당하는 포교전당으로 구성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16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룡대 홍제사 불사계획 및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2021년 11월까지 조성 예정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1만 3000여 평 대지에 대웅보전을 포함한 '법당'과 교육연수시설로 구성된 '교육관' 영역으로 나뉘어 불사가 진행된다. 법당 불사는 조계종과 군종특별교구가 60여 억 원의 공사비로 진행하며, 교육관 불사는 약 50여 억 원의 군 예산으로 이뤄져 총 110억 규모의 대작불사가 될 전망이다.

법당은 불자들의 신행 수행공간으로서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전시실, 어린이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관은 2층 규모로 총 24개 객실과 1개 지대방으로 구성돼 군불교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 공간이 될 예정이다.

특히 계룡대 홍제사는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해 군종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계자들이 많은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불사와 함께 군포교 전진기지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계룡대 홍제사가 다른 군법당과 다른 점은 교육관 시설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연수회나 수련회, 군승의날 행사 등을 임대를 하여 사용했다. 이번에 자리하는 교육관은 24개 객실과 1개의 다목적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는 군종특별교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불련, 파라미타 연계수련회 등 포교 전법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매년 3~4회 진행되는 군법사 연수를 비롯해 영관급, 위관급, 군종병, 군가족 템플스테이 등도 활용 가능하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밖에도 홍제사 불교대학 개설, 참선과 명상 등 프로그램 운영, 다도 · 서예와 같은 문화프로그램 상설화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선묵 혜자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단 안팎의 관심으로 불사 첫삽을 뜨게 됐다. 부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립하는 공덕은 한량없다"며 "홍제사 신축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이 나라 국군 장병들이 이곳에서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참불자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법 신장 역할을 다하는 전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4일 계룡시 계룡대 불사 현장부지서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060)700-0108, 불사동참계좌(국민은행 477401-01-237619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차주 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0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ONTACT 2020
서울붓다 페스티벌
12.12.SAT
오후 2시 | BTN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 극복 · 한반도 평화 기원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❶부 오프닝 퓨전국악<퀀> · 춤비슬 무용단 · 미디어타악 WeU
❷부 본행사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10만 수보리의 합창>
❸부 축하공연 트롯 스타 송가인 · 김경민
세종국악밴드 · 테너 석인모 · 봉은사 국악합주단

행사문의
(사)날마다좋은날
02-733-7277
everygoodday.org

주최 | (사)날마다 좋은날 주관 | 2020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조직위원회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신임 본사주지협 회장에 경우 스님

17일 68차 회의서 만장일치로
경우 스님 "종단과 가교 역할"
'재적 본사 전적법' 의견 교류
우려 제기에 차기서 논의키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통도사 원통방에서 제6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진행했다.


신임 회장 경우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기 회장에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통도사 원통방에서 제6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임기 만료된 정묵 스님(수덕사 주지) 후임으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회장 등 임원 임명은 차기 회장에게 위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

선출 직후 경우 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총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20명의 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해 성원됐다. 회의는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 △불교계(사찰) 국고보조금 신청 관련 협조 요청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회수 진행 경과가 주요보고 됐다. 보고 후에는 주지 스님들의 의견 수렴 및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스님들이 본사 재적 등록시 행정 오류나 본인의 실수로 재적본사가 은사 스님과 사형사제와 다른 경우 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특별법이다.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상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 후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우선 총무원 총무부는 '자신의 은사 및 사형사제와 다른 재적본사를 취적한 승려에게 재적 교구본사 및 전입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전적을 허용함(제1조)'을 밝혔고 전적 심사를 위한 '재적본사 전적심사위원회' 구성(제3조) 등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총무원에 따르면 재적본사가 은사 스님과 다른 스님은 3천853명이며 약 28.5%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마곡사만 하더라도 봉선사에서 넘어온 스님이 많아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각 본사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총무원 기획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불교 관련 제개정 추진 법령 등을 보고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겪는 토지보전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 목조건축물인 사찰의 특성상 현행법의 규모나 면적 제한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보고에서는 총무원 문화부가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범 검거 및 회수 진행경과'를 설명했다. 문화부는 "도난 문화재는 43건의 도난사건으로 95점의 문화재와 관련해 도난당했으나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로 성보를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내용으로는 사찰 방재 시스템과 불교성전, 교통표지판 개선안도 논의 됐다.

한편, 제69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내년 1월 18~19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리며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이다.

"마음과 행동으로 국민 행복하게 하라"

제 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 회장 취임 법회
이원욱회장 "화합과 상생하는 국회 만들 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여 대한민국을 자비희사가 흘러넘치는 극락정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원욱)가 11월 18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1대 국회 정각회는 지난 6월 29일 창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원법회가 지연돼 이날 봉행하게 됐다.

이원욱 정각회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 불자의원들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영광과 책임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면서 "정쟁이 격해질 때마다 국회 정각회가 나서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는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면서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국회 정각회가 앞장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화쟁의 가치를 통해 상생의 정치, 봉사의 정치를 구현하는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에서는 행복이 가득해서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을 극락이라고 이름하며, 정토라고도 가르친다"면서 "우리 모두는 정파나 주의를 떠나 국민에게 극락정토를 구현시켜야 하며, 협치를 통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조단경〉의 '석공덕정토'의 구절을 인용한 원행 스님은 "평등한 마음과 올곧은 행동, 은혜로운 마음과 의로운 뜻, 그리고 겸양과 인내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주변과 화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주변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회 정각회는 이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스스로 행복을 이루고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정각회는 11월18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21대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헌승 부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수행 · 호법 · 화쟁 · 원력 보살 되겠다"고 서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여 대한민국을 자비희사가 흘러넘치는 극락정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이, 정각회에서는 주호영, 이헌승, 조명희, 이수진, 이용, 유정주, 김영배, 양정숙, 김병주, 소병철, 이정문, 김형동, 황보승희, 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전계대화상 '추천' 원로회의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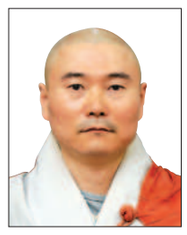
11월 26일 제 65차 회의
우경스님 원로의원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1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과 원로의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신임 전계대화상 추천은 오는 12월 14일로 현 전계대화상 무봉 성우 대종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하며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예하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이번 원로회의에서는 신임 원로의원 선출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11월 12일 진행된 제219회 정기회에서 신임 원로의원에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으며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정된 30명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원로의원은 원로회의법에 따라 중앙종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종사 · 명사 법계는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품서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현법 스님


선도 스님


정오 스님


정관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현법 스님 임명

원행 스님, 11월 18일 임명장 수여해
사회국장 선도 · 상임감찰 정오 스님
직할 교구 소림사 주지에 정관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에 현법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에 선도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정오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신문사 주간과 사회국장, 상임감찰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교신문사 주간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수계했으며, 개태사, 보승사 주지 및 13대,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문화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김포 용화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사회국장 선도 스님은 태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학림사 오등선원, 팔공총림 선원,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수행했다.

상임감찰 정오 스님은 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수계했다. 윤필암, 대원사, 보현사, 법화사 주지 및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원행 스님은 이날 직할교구 소림사 주지에 정관 스님을 임명했다. 정관 스님은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선사, '친절온도 1도 높이기' 교육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1월 13일 경내 청풍루에서 종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 '봉선사 친정온도 1도 높이기'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어떠한 생명이던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불교의 서비스 정신과 맥을 함께한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곧 서비스 정신"이라고 교육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의는 고객만족(CS) 전문강사인 남원선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은 친절한 응대방법과 신도들 맞이 · 배웅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지희 기자

圓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대종사 寂

귀의 삼보하옵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대종사께서 불기 2564(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법랍 68세, 세수 82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종단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큰스님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장 총무원장 만혁

부 위 원 장 법성

위 원 자관, 정오, 용담, 심공

문 도 회 원각, 혜공, 혜원, 지호, 지명, 해월, 진묘, 해산, 도광, 지선, 향련, 수연, 대운, 만공, 지명, 대월, 지천, 무공, 서호, 현문, 성준, 수해, 혜영, 법성

원 로 해담, 대월, 관곤, 대봉, 대광, 지선

■종정스님 행장보고

1940. 1. 4 충남 금산군 금산면 부곡리에서 부 이재봉, 모 김부녀씨의 5남 2녀 중 오남으로 출생
1958. 3. 18 태고사에서 행자로 입산
1960. 1. 4 개운사에서 경보사를 은사계사로 수계득도
1963. 7. 15 개운사에서 사교과 졸업
1966. 7. 15 개운사에서 대교과 졸업
1967. 4. 1 개운사 주지 취임
1967. 7. 15 개운사에서 하안거 성만
1968. 1. 15 개운사에서 동안거 성만
1968. 7. 15 개운사에서 하안거 성만
1969. 1. 15 개운사에서 동안거 성만
1979. 9. 18 영화사에서 석천화상을 법사로 입실건당
1984. 7. 1 연화정사 창건 주지 취임
1984. 7. 15 종사 법계 품수
1989. 9. 9 본원종 중앙종회 부의장 피선
1997. 8. 15 대종사 법계 품수
1997. 11. 7 본원종 제3대 총무원장 취임
2001. 11.19 본원종 제4대 총무원장 취임
2005. 9. 9 본원종 제5대 총무원장 취임
2007. 6. 15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취임
2009. 9. 9 본원종 제5대 종정 취임
2013. 9. 9 본원종 제6대 종정 재추대

■49재 일정

반혼제	불기 2564(2020)년 11월 13일
초재일	불기 2564(2020)년 11월 17일
이재일	불기 2564(2020)년 11월 24일
삼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01일
사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08일
오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15일
육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22일
49재일	불기 2564(2020)년 12월 29일

•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연화정사
•문의 : 총무원장 만혁 010-9996-6340

(사)대승불교본원종 범해당 대화 대종사 장례위원회

“코로나 시대 불교, 제도적 苦 해결을”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한국불교 2040’ 좌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합과혁신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한국불교 2040’을 주제로 기획 좌담을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과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적 · 제도적 고통 해결에 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명법 스님은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과 주체로 내몰리며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현대 종교는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세력 확장을 통해 개인이 겪는 불만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치환하고 유예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불교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님은 “성과주체로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려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는 불교가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개인의 고통’을 훨씬 넘어섰음을 강조하며, 이는 불교에게도 큰 도전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합과혁신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한국불교 2040’을 주제로 기획 좌담을 개최했다.

적극적 사회 참여 · 이타행 필요
생태 · 생명불교로 전환 이뤄야
‘종교 자유’ 아닌 공공성 강화돼
한국불교 ‘공동의 선’ 헌신해야

박 소장은 “은둔적이고 개인적인 불교 수행이나 축원과 기도, 제례로는 현재의 고(苦)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위기에 대처하려면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고통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이타행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나눔,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 코로나 블랙 등에 대한 심리적 방역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교의 가르침 중 사회적 생태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로나19로 사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교들이 돌봄과 생명 같은 윤리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핵심은 ‘공공성’ 내지 ‘공동의 선’의 실현에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모두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체류 백제관음상, 이젠 민족의 품으로”

조계종,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현재 일본의 한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사진〉’을 민족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1월 19일 대변인 삼혜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본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07년 부여 규암면에서 발견되어 대구의 컬렉터이자 의사인 이치다 지로(市田次郎)에게 1922년에 전해진 뒤 일본으로 건너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불상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불상 가운데 출토지역, 조성연대를 비롯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내력 및 소장자가 밝혀진 불상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유일하다.

조계종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7세기 불상 중 탁월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1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해 왔다”면서 “정부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탁월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반드시 국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환수가 필요한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른 곳으로 거래가 되어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종단도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교인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1월 17일 4대 종교 기도회
종교별 방식으로 릴레이기도

불교 법회와 기독교 예배가 한 자리서 열렸다. 찬송가와 ‘천수경’, 승복과 사제복. 종교는 달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염원은 같았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대 종교인들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도회’를 진행했다. 각 종교의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도법석이다.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와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길 바라는 종교인들의 기도로 진행됐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법회에 앞서 “사노위는 올 초부터 매월 2회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니 더욱 든든하고 감동적”이라며 “불교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추구하는 종교인만큼, 모두가 차별로 인한 고통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안부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을 멈춰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차별의 굴레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수자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소망을 담아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동국대, 보리가람학교 발전 힘 보탠다

11월 17일 조계종과 업무협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원과
학생 등 인력 교환제 추진도

동국대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 · 운영 중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탠다.

조계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총무원장)과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 상호교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름다운동행과 동국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으며,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 주재 공관과의 협업을 위한 기술자문, 나아가 한국과 탄자니아 간 문화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과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학장 이병무) 간 협약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의 교육 · 연구를 위한 학생 교환, 상호방문을 통한 교수 · 연구원 · 행정직원 교환 등 상호간 인력 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교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현재 3년제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들이 동국대로 편입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졸업 후 활동범위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아름다운동행과 동국대는 11월 17일 보리가람농업대학과의 상호교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양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의 출판물 및 정보교환, 협력 교육과 연구 등 학술적인 교류 토대도 함께 마련했다.

원행 스님은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의 확고한 기반은 농업이기에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배출하는 학생들이 본국 국민들의 생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설립 당시 前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보통 원력으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지에 불연을 심는 포교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학생 등 학교구성원, 나아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동국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의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미흡한 학제를 다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도 “학술 교류 등 전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자니아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더욱 발전해 포교에도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과 상임이사 일화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김승용 기획처장, 임중연 국제처장, 이병무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성정석 평가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2020답게살겠습니다 운동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 주관 | 7대종단 평신도협의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

2020 한사평 한마음잇기운동 주요행사
| 주제 “마음을 잇다”

2020 마음을 잇다는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7대종단평신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존중과 배려,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살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입니다.

문의 | 한사평 사무국 02-777-2013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헌혈캠페인
11. 8(일) 10:00-16:00 대전 판암동성당
11. 8(일) 10:00-16:00 서산 예천동성당
11. 15(일) 10:00-16:00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
11. 17(화) 10:00-16:00 서울 명동성당 앞
11. 18(수) 9:00-16:00 서울 동대문구청 앞
11. 20(금) 9:00-16:00 서울 서초구청 내 보건소 앞
11. 20(금) 9:00-16:00 익산 원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술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
일시 | 11월 14일 (토) 14:00 - 17:00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YouTube cpbc TV 채널 라이브

평화나눔 랜선음악회
일시 | 11월 28일 (토) 15:00 - 17:00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YouTube cpbc TV 채널 라이브
1부 : 트리니타스쳄버오케스트(지휘 정주현)
트리니타스합창단(지휘 이성영)
cpbc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지영)
소프라노 석동령/ 테너 전낙원 / 창 김영리
2부 : 김연자 / 조항조 / 정수라 / 신혜

“석굴암 창건, 8세기 초엽 상향돼야”

한동호 교수,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8세기 중엽 석굴암 조성 학설
삼국유사 불국사 창건기 근거
설화 바탕 기록… 의구심 제기

7세기 후~8세기 초 화본 분석
석굴암 조각상 8세기 초 편년
“710년을 벗어나지 않아” 주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 김대성이 751년(경덕왕 10)에 창건했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석굴암의 조성시기가 현재의 8세기 중엽이 아니라 8세기 초엽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11월 14~15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개최한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서 ‘화본으로 본 석굴암 창건 시기’를 통해 “현재 8세기 중엽이 아닌 8세기 초엽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굴암의 창건 시기를 751년으로 확정한 근거는 〈삼국유사〉 ‘대성효이세부모조’의 불국사 창건 기록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에 편찬된 기록이며 석굴암 창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또한 설화 속에 담겨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비판없이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라문화의 전성기인 8세기 중엽에 석굴암 불상과 동시 제작됐을 것이라고 볼만 한 작품이 없으며, 도리어 비견되는 작품들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에 조성된 사례가 많은 것도 의문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당시 유통된 화본들을 분석해 석굴암 조각상 중 동일한 화본에 의해 조성된 작품들을 찾았다. 한 교수가 찾아낸 사례는 금강역사상 · 사천왕상 · 감실 보살상 · 10대 제자상이다. 금강역사상의 경우 690년에서 705년 사이에 개착된 용문석굴 고평군왕동 입구 좌우에 부조된 금강역사상과 자세가 일치한다.

석굴암 사천왕상 중 동방지국천왕은 661~663년에 조영된 용문석굴 경선사동의 사천왕상과 본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앞선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한 교수는 “석굴암 북방다문천왕은 일본 호류지 귤부인주자의 문비에 그려진 북방다문천왕도와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로서 주목했다.

제9 감실의 보살상은 일본 호류지 금당 제2호벽의 반가형보살도와 같은 화본이 적용된 사례라고 봤으며, 석굴암 10대제자상은 호류지 금당 제1호벽의 석가정토도에 등장하는 10대 제자 도상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석굴암 조각상과 비교한 작품은 모두 7세기 후반서 8세기 초로 편년된 작품”이라며 “특히 일본 하쿠호시대에 제작된 호류지 전래 작품 중 석굴암과 동일한 화본이 적용된 사례가 집중된다는 것은 특기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에서 벗어나 석굴암 불교미술을 당시 국제관계 속에 해석하면 석굴암 창건시기는 8세기 중엽이 아니라 8세기 초반을 넘어서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전 황복사지 삼층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추가로 봉안했던 706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이며, 늦어도 710년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주제로 열린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대회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 민화와 불화의 관계 등 관심도가 높은 기존 미술사학 관련 분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한 논문들이 발표됐다.

첫 온라인 불교박람회, 누적 접속자 13만 명

11월 5~11일 ‘웰니스’ 주제로
홈페이지서 기획전시 등 운영
2021년 6월까지 컨텐츠 공개



온라인으로 진행된 명상웹컨퍼런스 모습. 비대면 언택트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호평받았다.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11월 15일 폐막했다. 이번 국제불교박람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으며, 10일간 참여업체 160개, 누적 접속자 13만명을 기록하는 등 불교문화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마인드풀 웰니스(MIDNFUL WELLNESS), 마음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주제로 160개 업체 및 작가의 상품과 작품, 기획전, 릴레이 강연, 명상웹컨퍼런스, 소셜커머스, 서울릴랙스위크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5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 기간 중 누적 방문자수 13만 명을 기록했다. 박람회 측은 “기존 불교박람회 연인원이 7만 명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확인한 셈”이라며 “불교박람회 관람객의 평균 연령인 50~60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간편한 가입시스템을 구축해 낯선 형식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웰니스산업의 성장 트렌드에 맞게 마음산업 · 명상을 집중조명하고, 온라인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도 성공의 요인이라는 평가다.

특히 ‘끌어안음’을 주제로 한국불교수행, 남방불교수행, 서구의 마음챙김, 티베트불교수행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명상웹컨퍼런스도 안정적인 운영으로 성과를 냈다. 4일간 총 12명의 연사가 출연한 웹컨퍼런스는 매회 접속자수 200명 이상, 재방송 누적 시청 5721회를 기록했다.

공동운영위원장 정호 스님(불교신문 사장)은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불교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는 또 하나의 지향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박람회가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동운영위원장 지홍 스님(불광미디어 발행인)은 “많은 온라인 방문객과 준비한 프로그램 접속, 시청 등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칭찬받아야 한다. 반면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나 작가들의 판매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은 차후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는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향후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국제박람회는 2021년 6월까지 홈페이지(www.bexpo.kr/)를 운영, 기획전과 산업전, BAF전 등 참가업체와 상품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릴레이 강연을 비롯한 붓다 스테이지, 서울릴랙스위크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상시 이용 가능하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0불교평론 학술상에 이광준 박사

12월 17일 시상식, ‘붓다의 법담학 연구’ 평가 받아



2020 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로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사진〉이 선정됐다. 수상 저서는 〈붓다의 법담학 연구-불교 상담학 원론에 대한 고찰〉(운주사, 2020)이다. 시상식은 12월 17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상경험도 갖고 있는 실천가로 그동안 〈한국적 치료심리학〉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정토불교의 참회사상〉 등 불교학 저술을 계속 내놓고 있는 학자다.

그는 백상창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장, 한림성심대 교수, 고마자와대학 심리학연구실 연구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교수)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불교에 있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기 위한 법담학의 사상적 기초를 세워놓았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는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만해학회장 한중옥, 불교학연구회장 임승택

불교학계 총회서 회장 선출 잇따라

만해학회 회장 이 · 취임식이 11월 14일 오후 4시 서울 성북동 심우장(尋牛莊)에서 열렸다. 전임회장인 전기철 시인에 이어 새로 선임된 한중옥 신임회장은 제주 출생으로서 현재도 서귀포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화가다.

취임사에서 한중옥 회장은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은 지역과 세대와 종교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정신을 길이길이 후손에게 전승시켜야 할 책무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도 11월 14일 동국대에서 zoom을 활용해 비대면 2020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11대 회장인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12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했다.

임승택 교수는 “연임 결심의 직접적 동기는 〈불교학연구〉의 SCUPUS 등재에 있다. 임기동안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불교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불교학연구회는 영문홈페이지 구축, 무진국제학술상 제정, ‘21세기 불교포럼’ 결성을 주도했다. 또 새로 시도된 〈불교학연구 리뷰〉가 호평받았다.

노덕현 기자

백성욱硏, ‘미륵존불시대’ 발표회

고준환 교수 밝해문명과 상생시대 등 고찰



백성욱연구원(이사장 정천구)은 11월 18일 전법회관 보리수회의실에서 11월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의 ‘백성욱 박사와 미륵존불시대’ 주제발표를 통해 백 박사의 삶과 가르침, 미륵존불시대 등을 짚었다.

고 교수는 “백성욱 박사의 주요 가르침은 〈금강경〉 독송과 미륵존여래불 염송으로 삼독심을 버리고 견성성불 미륵존불 시대를 연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밝해문명으로 칭할 수 있는 선천광명시대를 열고 앞으로 상생시대를 이끌어 세계문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밝해문명은 인류 문명사를 지혜발달사로 분류한 고 교수가 주창한 것으로 한민족의 해맑은 정신이 세계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인류 창세 최고 문명인 ‘밝해문명(太陽光明文明)’이라는 내용이다.

노덕현 기자



코로나 극복 위한 명상 강연 눈길

한국명상총협회 11월 14일 벡스코서 개최

각산 스님 · 이시형 박사 강연
명상의 면역강화 등 효과설명
해운대 구청 국민숲체험 개설
부산의 명상터전 발돋움 기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면역력은 어떻게 생성될까? 또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명상의 유익을 알아보고 앞으로 이 시대 정신문화를 이끌 대안으로 명상을 제시하는 법석이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협회장 각산)는 11월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명상 강연' 을 개최했다.

'명상 강연' 은 코로나19로 지친 부산시민에게 바른 건강관리와 마음의 안정을 통한 치유를 안겨주기 위해 개최됐다. 부산 해운대구청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현대인을 위한 치유의 장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은 각산 스님(한국명상총협회장)과 이시형 박사(세로토닌 문화원장), 베르나르 신부(도전돌밭공동체 이사장)가 담당했다.

각산 스님은 호흡명상을 실참하며 대중을 위한 명상자리를 펼쳤다. 이어 강연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는 11월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명상 강연' 을 개최했다.

각산 스님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로 통찰하고 받아들이며 인과의 법칙을 통해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한다"며 "명상을 통한 지혜로 관념을 바꾸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시형 박사는 명상이 면역력강화와 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시형 박사는 "뇌가 피로하면 감정조절이 안 되고 절제가 어렵지만 호흡을 잘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명상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안내했다. 이어 "명상을 하면 후대상피질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조절한다. 명상은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과학이다"고 말했다.

베르나르 신부는 명상으로 죽음을 직면하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르나르 신부는 프랑스 보르도 의대에서 6년 간 의학을 전공했고 350구가 넘는 시신을 해부하다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 가톨릭 사제가 됐으며 석 · 박사 논문은 성철 스님에 관한 주제였다.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17년 동안 간화선 수행도 하고 있다.

베르나르 신부는 "죽음의 순간에는 호흡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 붙잡을 수 없다"며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삶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몸과 마음이 부자인 행복한 도시를 위한 방법으로 명상 보급을 꼽았다.

홍순헌 해운대 구청장은 "해운대는 20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했고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돌아보았다"며 "외적인 부자는 있지만 마음의 부자는 없다고 진단했고 국립숲체험 공간을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구청장은 "2년 후 숲체험 공간은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준비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명상의 대가 세 분을 모셔 강연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화 위한 한국불교문화협회 문 열다

11월 13일 불전연구소 개원법회
호법 스님 "상좌부불교 가교역할"

세계일화(世界日華)를 위한 거점,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가 문을 열었다. 미얀마, 태국 등 상좌부 불교와 소통하고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며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이사장 호법)가 11월 13일 불전영어연구소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불교 간 오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미얀마와 태국 등 상좌부 불교는 자신만의 수행을 위해 대중을 외면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한국에서는 '소승 불교' 라 불렸다.

또 한국 불교는 중국에서 불교가 유래돼 그 과정에서 전통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고 남방 불교에서 외면당했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불교가 하나가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원력이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가 개원법회를 11월 13일 불전영어연구소 법당에서 개최했다.

개원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으로 진행됐고 경과보고로 그간 활동 준비를 알렸다. 내빈들의 인사말 및 축사, 격려사, 법문 후 범어사 전 주지 정여 스님은 직접 적은 휘호를 호법 스님에게 전달하며 한국불교문화협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 정여 스님, 미륭사 회주 정각 스님, 이사장 호법 스님, 기장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로이알록꾸마르 전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김철훈 영도구 구청장, 심기삼 구의회 의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여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심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전 세계 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문을 연 한국불교문화협회가 우리 불교를 맑히고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 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사장 호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좌부불교와 한국불교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자 문을 열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국제 교류와 소통을 위해 돌파구를 찾고 화합을 위한 기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협회는 오랜 학술 연구와 준비가 뒷받침 됐다. 호법 스님은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에서 연구했으며 태국 마하출라롱콘대 학사, 부산대 석사, 태국 마하출라롱콘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 방문교수로 활동했다. 부산 영도 발원사 주지로 포교활동을 이어가며 2016년 10월 불전영어연구소를 발원사 부설로 개원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문화연구소는 2020년 7월 발기인들과 준비를 시작해 9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었고 부산시에서 9월 28일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개원 9주년 "미소 가득한 세상을"

11월 13일 기념법회…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도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개원 9주년을 맞아 11월 13일 기념법회를 미소원 법당에서 봉행했다.〈사진〉

기념법회는 개회사와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미주 前 청년회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새로운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금전달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미소원은 이날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난치병환우돕기 성금 858만4940원을 전달했다. 미소원의 원력에 동참하며 부산평화시장불자회가 이웃자비나눔성금을 후원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의 활동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났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美談으로 행복한 국민 꿈꾼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미토리 덕담 캠페인 전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는 11월 18일 KNN 2층 회의실에서 '미토리 캠페인 업무 협약식 및 1호 감사사연 발표' 를 진행했다.〈사진〉

'미토리' 는 아름다울 미(美)와 사연(story)을 합친 단어로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하는 캠페인이다. 인생에서 감사했던 사연과 인연을 소셜 네트워크에 소개하고 따뜻한 덕담을 나눠 메마른 현대인에게 따뜻한 정서를 선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동참자에게는 '미토리 플라워' 가 제공된다. '미토리플라워' 는 덕담을 소개하는 일반인의 참여를 이끌고 미혼모 가정의 경제 후원을 위해 기획됐다.



정각 스님은 "어려웠던 시민들을 함께 돌아보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전북종무원, 베트남 어린이에 자전거 전달

외무부 통해 비대면으로 75대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이 베트남 초등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위해 자전거 50대를 전달했다. 기부된 자전거는 11월 11일과 12일 외무부를 통해 베트남 닥락성 Krong Bong 현과 Krong Buk 현의 학생들에게 각각 25대씩 전달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지난 5월 6일에도 자전거 25대를 전달한 바 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매년 베트남 닥락성의 초등학교에 정수시설과 정수기 설치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국 간 문화, 나눔의 교류가 중단되자 외무부를 통해 자전거를 전달하게 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베트남 초등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위해 자전거 50대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자전거와 함께 전달된 친필 서신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국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달리면서 아름다운 세상보기' 라는 주제로 전달된 자전거를 통해 전북과 닥락성의 교류가 이어지고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아름다운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사)JIVEC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를 통해 전북과 베트남 닥락성간 우호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글 학당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 경제, 농업, 기술, 노동자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담그기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영제)는 11월 17일 지역 소외계층, 독거노인, 모자원을 돕기 위해 '행복나눔 자비의 김장담그기' 를 경내 향림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과 이태훈 대구 달성구청장 조현대 대성사 신도회장, 김헌동 성당동장 대성사 봉사단원 등이 참석해, 구인사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약 1500포기를 김장으로 담가 달서구와 성당동 등에 전달했다.〈사진〉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례 사성암 나한53불 점안법회

11월 15일 나한전서 개최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준다는 사성암이 나한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구례 사성암(주지 대진)은 지난 11월 15일 나한전에 모셔진 53 나한상에 대한 복장 및 점안식을 갖고 완성된 나한성지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이날 모셔진 53나한은 원래 조선 초기에 석조로 조성된 33상이 모셔져 있었으나, 이날 20상을 추가로 조성, 53상을 완성해 복장과 점안 행사를 가진 것이다.

주지 대진 스님은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에 의하면 53불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사중오역(四重五逆) 등의 죄가 모두 청정해진다고 한다"며 "여법하게 경전에 의거해 완성된 나한전을 통해 사성암이 약사여래불 기도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구례 사성암은 지난 11월 15일 나한전에 모셔진 53분 나한상에 대한 복장과 점안식을 갖고 완성된 나한성지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점안식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증명법사로,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로 지정된 불복장 보유자인 도성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22년 연기조사가 건립하여 원래 오산암으로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의 고승인 의상, 원효, 도선, 진각 국사가 수도하여 사성암이라 전해지고 있다. 근래에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조성된 사찰의 뛰어난 경관과 함께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스님 원적

11월 11일 법랍 68세 · 세납 82세로



본원종 종정 범해당 대화 스님〈사진〉이 11월 11일 법랍 68세, 세납 82세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본원종은 11월 13일 동국대 일산병원 영안식에서 종단장으로 영결식을 개최했다. 대화 스님은 충남 금산서 태어나 14세에 마곡사로 출가, 개운사서 수계득도했다. 1967년 개운사 주지를 시작으로 수행에 매진했다. 1979년 영화사서 석천 스님을 법사로 입실건당했으며, 1984년 서울 평창동에 연화정사를 창건했다. 본원종 중앙종회 부의장, 제3~5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9월 본원종 5세 종정으로 추대됐다. 2013년 6세 종정, 2019년 7세 종정으로 재추대 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현불 논단 |

연등회는 인류문화 공헌 축제



임돈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동국대 종신 석좌교수

연등회, 1500년 역사 가진 축제
조선시대에도 민중에게 사랑받아
지난 2012년엔 무형문화재 지정

전통문화 축제이자 진화하는 유산
유네스코 '지속 가능한 발전' 부합

환경 · 평화 등 관점서 연등 제작을
'무형 유산 지속 발전' 목표 삼아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11월 17일 한국 정부가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를 결의했다. 최종 등재 결정이 남았지만, 무난히 등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연등회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지켜온 불교계의 큰 행사로서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시작된 1500년 역사를 지닌 민족 축제이다. 국교가 불교인 신라,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어져 그 규모나 위엄이 매우 장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로 와서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정책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민중의 사랑을 받던 연등회는 민간 차원에서도 성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96년(불기 2540년)부터는 축제이름을 연등축제로 정하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제등행렬을 비롯하여 불교문화마당, 어울림마당(연등법회), 대동(회향)한마당 등의 행사가 추가된 종합적인 축제로 되었다.

2012년에는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등장하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연등회는 우리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축제이며, 계속 진화할 수 있는 무형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새로운 목표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무형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또 다른 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연등회의 가치와 그대로 부합된다.

연등회의 핵심은 연등이다. 연등회의 연등은 단순한 등불의 축제가 아니다. 불을 밝힘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다. 등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축제이다.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연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연등을 만들 때 하나의 염원을 담아 만든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자녀의 인원대로 연등을 밝혔다고 기록돼있다. 등 모양도 수박, 잉어, 학 등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많았다.

연등을 개인의 염원뿐만 아니라 단체, 공동체,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적 관점에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바람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원등', 사회 갈등의 해소를 염원하는 '화해등',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테러의 종식을 기원하는 '테러종식등'을 만들면서 또 관등을 하면서 국제적 평화에 대한 염원을 교육하고 일깨우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연등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평형성 △분쟁 방지와 해결 △평화와 안전 회복 △지속적 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필자는 유네스코의 새 화두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연등회는 어느 무형유산보다 더 많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연등회를 유네스코의 새로운 정책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때 연등회는 세계가 공감하고 즐기는 그리고 인류문화에 공헌하는 축제가 될 것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포스트 코로나와 랜선 설법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괴로움의 해탈(사성제)'이다.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다. 따라서 괴로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 해결하는 지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팔만대장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음 심(心)' 한 자로 요약할 수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마음의 정체 즉, 본래 마음자리(본성, 불성)가 실체가 없는 무자성(無自性)이지만, 인연(6근과 6식의 접촉, 오온의 화합)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규봉선사와 보조국사는 본래의 마음자리가 허공처럼 공적(空寂)하고, 신령스럽게 인식하는 영지(靈知)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마음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주체이다. 심왕(心王)이라고 한다. 마음이나 신은 실체가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마음이나 신의 존재(존재론)에 대한 이해는 각자 개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인식론의 문제이다.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에 대한 경전의 말씀은 〈아함경〉 〈법구경〉 〈화엄경〉과 유식학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또, 마음에 의하여 괴로워진다"고 하였고,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心爲法本)"이라고 하였다. 〈화엄경〉 '야마궁중게찬품'에 대장경의 골수라고 전하는 '유심게'가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의 이치를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은 실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用心)이 있다. 따라서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면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여 관찰(알아차림, 마음챙김)' 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명상(선정) 수련인 위빠사나와 사마타(삼매) 수행이다.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 가고 있다. 제2의 페스트로 인류의 큰 재앙이다. 유럽의 페스트가 중세의 절대적인 신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처럼 코로나는 대중이 모여서 법회와 예배를 하는 종교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모이면 위험한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현대는 유튜브가 대세이다. 우리는 이번에 초중고대학까지 온라인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수업을 대체하였다. 우리 불교는 경전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연이나 랜선 설법을 통한 이해와 소통이 이웃 종교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자가정에 새로운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신행상담과 법회를 통한 설법을 해야 한다. 법사는 마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해야 한다. 마음은 철학, 종교학, 인문학, 정신의학, 심리학, 명상, 심성산업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어려운 역경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불교 교단에게 기회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살아숨쉬는 유산 '연등회' 되길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가 한산하다. 수많은 거리축제들이 취소됐다.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때, 한국불교 전통을 알리는 연등회(燃燈會)의 낭보가 날아왔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 된다는 소식이다.

문화재청은 11월 17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12월 14~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가기구는 세계 각국의 대표 목록 등재 신청 42건을 심사해 등재 25건, 정보 보완 16권, 등재 불가 1건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전세계 70개국 90건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등회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한국에서는 21번째다.

그동안 연등회는 품격이 다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호활동이 전개된다. 앞으로 연등회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등회를 단순한 전통문화의 재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과제를 함께 녹여내는 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축제, 다문화 문제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 등 살아 숨쉬는 축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등회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홍제사 불사 후원 적극 동참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영외법당으로 호국 홍제사 건립에 나섰다. 11월 24일 착공한 호국 홍제사는 계룡대 군 장성들과 장병들을 위한 신행공간을 넘어 군불교 총본산으로 자리할 것이다.

영외법당인 호국 홍제사 불사는 군과 지역관계 강화에 따라 종교시설의 개방 트렌드에 따른 것이다.

법당은 불자들의 신행 수행공간으로서 1층 공양간, 2층 다목적홀, 군불교 역사 전시실, 어린이법당, 3층 대웅보전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관은 2층 구모로 총 24개 객실과 1개 지대방으로 구성돼 군불교 미래를 짊어질 군법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공간이자 불자들이 템플스테이와 명상들을 체험하는 포교와 전법 공간이 될 예정이다. 영내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포교 등은 군불교를 넘어 포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른 종교계는 이미 예배 등 종교공간과 별도로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교육관 건립에 나선 바 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막대한 불사 비용이다. 110억 원에 달하는 불사금은 불교계가 힘을 모은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불사 비용에 버금간다.

먼저 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1억 원, 호국사 1억 원, 원주 법웅사에서 1억 원, 부산 금련사 1억 원 등 현역군승법사들과 교계 안팎에서 불사금을 약정하고 있다. 보다 많은 불자들의 홍제사 불사 동참이 절실하다. 호국 홍제사는 군장병들 그리고 계룡시 인근의 군가족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 포교의 전당이 될 것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불사에 보여준 불자들의 후원 행렬이 홍제사에서 다시 일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5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교육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풍찬노숙 동안거 90일간의 여정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간의 기록
백승권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6천원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의 기록
안거 대중 아홉 스님 인터뷰 묶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 정진동을 나온 정진대중 아홉 스님들이 대중과 삼천대천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

2019년 11월 11일, '2563년 동안거'가 시작된 이날은 한국불교사에 '한국불교 최초의 동안거 천막결사'라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됐다. 그 역사적인 90일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은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천막결사의 주인공인 아홉 스님이 90일 동안 있었던 일들과 느꼈던 것들을 들려준다. 유례없는, 앞으로도 보기 힘든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시대에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수행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아홉 스님의 인터뷰를 담았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옷 한 벌, 삭발 목욕 금지(양치만 허용), 외부인 접촉 금지, 묵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 제외, 유례없는 청규 속에서 안거는 시작됐다. 흙바닥 위의 비닐하우스 천막선원, 방부를 들인 아홉 스님에겐 좌복 하나와 1인용 텐트가 주어졌다. 처음으로 아홉 스님이 함께하는 풍찬노숙의 무문관 동안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동안거가 끝나는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이 자리한 위례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유례없는 동안거 해제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천막이 자리 잡은 작은 언덕 위로 수백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들었다. 코로나19를 걱정한 주최 측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그 수백 명은 수만 명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열기만큼은 수만 명 인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오후 1시 30분, 굳게 잠겼던 상월선원의 자물쇠가 풀리고 아홉 스님이 차례차례 무문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중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해제풍경이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 모습은 놀라움과 신기함, 그리고 마침내는 경이로운 마음을 품게 했다. 대중은 합장으로 아홉 스님을 맞았다. 아홉 스님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90일 동안 씻지 않고 일종식을 했던 아홉 스님의 얼굴은 뜻 밖에도 환하고 평온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여위고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결기가 보였다. 그 얼굴들은 대중이 궁금해 했던 천막 안의 90일을 모두 말해주는 듯 했다. 아홉 스님의 얼굴은 단지 지난 90일 동안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90일, 앞으로의 100년, 200년을 그리는 또 하나의 입재였다. 새로운 기운이었다.

14시간 정진, 하루 한 끼, 목욕금지 등 풍찬노숙, 유례없는 청규 무문관 안거 주고받은 필담, 이심전심 이야기 소개 한국불교 미래 담은 새로운 기운 보여

"상월선원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아가 수행의 종풍이 자랑스러운 우리 종단임에도,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정진을 소홀히 한 것을 깊이 돌아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안거마다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마다 쌓이는 수행의 결실들이 승가는 물론 사부대중 모두에게 널리 전해지고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공덕을 회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자승 스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근본은 선방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방이 꼭 깊은 산속에 있어야만 할까. 평생을 선수행으로 정진했던 서암(조계종 제8대 종정) 스님은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고, 그곳이 바로 절이지"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을 다녀온 뒤 '노숙 수행'을 생각했다. 서울역이나 탑골공원 근처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려 한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고심 끝에 위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천막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천막결사가 시작되자 세간에는 천막결사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례가 없는 일에는 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옳은 일일까. 없었던 일이니 그 뜻이나 결말에 많은 의문들이 쏟아졌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90일의 문 없는 문을 열고 나온 아홉 스님의 얼굴은 많은 의문들을 무색하게 했다. '90일'은 90일을 지나온 아홉 스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석양이 그립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빛이 그립네. 정진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돼. 왜 이리 힘든가. 춥다. 허기진다. 기운이 없다.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하나."〈인산 스님 수행일지 23〉

책 속에는 '달마대사 스타일 3명' 등 묵언수행 중 스님들이 주고받은 필담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이심전심으로 함께 지나가는 90일의 일기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일기는 한 시대를 같이 걷는 모든 대중에게 던지는 공업의 대안과도 같았다.

저자 백승권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미디어오늘' 기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업무용 문서 매뉴얼 제작 및 글쓰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업무용 글쓰기 강사로 활동 중이다. 1980년대 후반 문예지 〈녹두꽃〉에 두 차례 글을 실었으며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 〈보고서의 법칙〉,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강원국 백승권의 글쓰기 바이블〉 등 십여 권의 책을 펴냈다.

연기 · 중도 · 자비… 현대 정치 지향할 가치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
방영준 지음 / 인북스 펴냄
1만4천원

40년 윤리 연구한 인문학자의
'불교 정치철학' 체계화를 시도
현대 정치 이념들 불교적 해석

'사람 셋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는 인간사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유구한 시간동안 정치는 '정치철학'이라는 인간과 사회의 정치적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한 형태로도 진화해갔다.

40여 년을 윤리학과 사회사상을 연구해 온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정치철학이라는 철학 분야와 불교와의 통섭을 모색하며 '불교 정치철학'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서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를 펴냈다.

저자가 말하는 불교 정치철학은 불법(佛法)의 핵심인 연기법, 중도, 자비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요소들은 상호 연결돼 작용한다.

붓다의 기본 사상인 '연기법'의 현대적 변용과 창발이 현대 정치철학의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한다. 이와 함께 유무를 떠나고 진위와 선악 등 이항대립을 초극하는 사유 방식인 '중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정치철학의 지향가치는 '자비 공동체' 구현에 있다. 이 같은 지향 가치에 오늘날 현대 이념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포괄돼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관계부터 현대 정치이념의 불교적 해석까지 '불교 정치철학'을 정립하고 있다.

저자는 △현실에 대한 상황규정 △지향가치와 이상사회 △실천 방법과 전략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불교 정치철학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특히, 붓다 다르마의 최고 가치인 '열반'은 지혜와 자비에서 나옴을 상기시키며, 이를 정치철학적 용어로 치환해 △대자유인 지향 △행복한 삶의 실천 △자비 공동체 구현 △연기의 중정(中正) 구현 △생명 · 생태사회의 구현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개인윤리 · 사회윤리 · 사회운동 차원의 팔정도 수행을 통해 정법을 확산하고 붓다의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 '현대 정치이념의 불교적 성찰'은 평생을 윤리철학 연구에 매진한 저자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공동체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아나키즘 등 현대 정치이념을 붓다의 가르침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연기와 중도의 지혜로 이념을 대하면 결코 이념의 오류와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인간의 삶을 위한 바람직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정치철학적 과제로는 △민주적 정의 공동체 지향 △이념적 화쟁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 제시 △불평등 문제와 자비 공동체 구현을 꼽는다. '민주적 정의 공동체 지향'에 대해 저자는 붓다의 연기법을 정의론으로 연결시킨 아마르티아 센의 정의론을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소개한다. '이념적 화쟁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는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중도의 지혜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통일 미래상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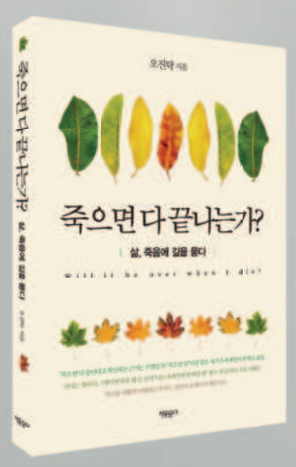
'불평등 문제와 자비 공동체 구현'은 불교 정의론의 핵심이다. 자유는 평등의 가능한 적용 분야에 속하고, 평등은 자유의 가능한 분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연기법, 중도, 자비를 어떻게 현대 정치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저자 방영준 교수는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를 통해 던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죽으면 다 끝나는가?



생사학 전문가 오진탁 교수가
풀어놓는 죽음의 실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실체인가?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진탁 지음/신국판/352쪽/값 17,000원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인 철학논쟁!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유불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책은 유불 논쟁이 지니는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도웅 지음/신국판 양장/480쪽/값 25,000원

일본불교는 한국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발로 뛰어 완성한, 일본 속 한국 고승전! 일본불교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고구려, 백제, 신라 스님들의 일본에서의 삶과 활약상, 의미 등을 최초로 밝히고, 그 발자취를 찾아 기록하였다.

이윤옥 지음/ 신국판 양장/372쪽/값 22,000원

도서출판 자유문고 |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태국 불교계, 반정부 시위 참여 금지령

국가불교사무소, "시위 참여시 승려직 박탈"

'위장승려' 가능성도 제기돼
원칙적으로 정치 참여 금지
일부 시위 참여한 스님들은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겠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국가불교사무소(NOB)가 승려들의 반정부 시위 참여를 금지하고 나섰다. 이를 어길 시 승려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태국 현지 언론 '타이PBS' 등 외신이 11월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NOB는 최근 전국 승려들에게 군부 정부 및 왕권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승려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찰 재량에 따라 승려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NOB는 시위 현장에서 승려들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른바 '위장 승려'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태국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승려들의 사회 ·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승려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법령이 1995년 제정됐다.

그러나 몇몇 승려들은 정부와 불교계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위에 참석한 한 승려는 "우리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나서선 안 되지만, 올곧은 권리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가 성공하길 원한다"며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Vice News'를 통해 말했다. 그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해달라고도 했다.

또 다른 스님도 "반정부 시위는 인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승가 공동체 내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정의를 요구할 때 우리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스님은 또 "승려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의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시위대를 체포한다. 현재 태국 사회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나선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VICE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진 스님도 있다.

프라 판야 시선(Phra Panya Seesun) 스님은 "경찰로부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받았다"며 "그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고 'Vice News'에 호소했다.

시선 스님은 "젊은 승려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느낀다"며 "그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 정부로부터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 망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 반정부 시위는 지난 2월 태국 법원이 진보 신진 정당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을 해산시킨 것이 단초가 됐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사임, 권력에 대한 추가 제한 군주제, 그리고 새로운 헌법의 초안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물러나지 않아 시위대 규모는 점점 확장되는 추세다. 다만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 시위'로 진행되는 중이다.

사찰 철거 후 '재건축' 약속 어긴 중국

中장시성, 700년된 사찰 철거
재건축은 중단…반발 탄압도


지역 당국에 의해 동원된 인력들이 사찰의 새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 사진출처=bitterwinter

중국 남부 장시성이 700년 된 사찰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겠다는 재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사찰 측이 이에 동의해 철거한 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 철거 후 1년 반 만에 재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종교 · 인권 잡지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11월 18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장시성에 위치한 백룡사는 7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8일 지자체가 지역 사찰들의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철거됐다"며 "지역 당국은 이를 막아서는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백룡사의 불상 등 불교 건축물은 허름한 창고에 임시 보관됐다. 사찰 관계자는 대신 철거 장소에 마오쩌뚱 동상을 설치했다. 그 옆쪽으로는 '공산당에 충성하고, 당을 영원히 따르며, 당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의 사상을 연구하라'는 내용의 슬로건도 게시했다. 사찰의 재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당국과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사찰의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 당국은 철거 후 재정비 사업을 중단했다. 기존 사찰이 철거된 후 최근까지 1년 반 동안 새로 지어진 구조물은 2m 높이의 벽에 불과했다. 지역 당국은 지난 10월 이마저도 인력을 동원해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아서려는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과 충돌이 발생했으며 동원된 인력들은 신도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화' 방침에 따라 불교 · 기독교 · 도교 · 힌두교 등 종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감행 중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쓰촨성 불교학원' 등이 철거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성소수자, 사후에도 차별 받는가?

日불교계, '평등' 주제로 심포지엄

일본 불교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후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11월 14일 일본의 '블로고스'는 일본 불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해결방안 그리고 사후에 대한 논의를 보도했다.

지난 11월 5일 59개 종단과 불교계 단체 등으로 구성돼 일본불교를 대표하는 '전일본불교회'는 '불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등'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일본불교회 이사장 토마츠 요시하루 스님은 "불교는 성별, 사회적 지위, 제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터부시 했다. 평등해야할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의 방향이 달랐다"며 심포지움의 개최 의의를 전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법 개정이나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결혼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 상속을 비롯한 여러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일본불교회 주최 '불교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등' 심포지엄 전단. 사진출처=전일본불교회

토마츠 이사장은 특히 사후에 남녀를 구분 짓는 계명을 지적했다. 토마츠 이사장은 "아무리 스님이 좋은 계명을 주더라도 호적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이는 죽어서 만큼은 남성으로 대우받길 원할 수도 있다"며 "살아생전 사찰에 자신의 의사를 전하거나, 주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면 계명의 부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며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도쿄예술대 학생들, 1300년 전 불상 복원

일본 · 중국 · 대만 합작해
토다이지 '집금강신' 복원

도쿄예술대학교 연구생들이 토다이지(東大寺)의 집금강신 불상을 복원해 화제다. 특히 이번 복원은 일본, 중국, 대만 3국의 학생들이 합동으로 복원해 더욱 뜻깊다. 지난 11월 13일 일본의 '닛폰 닷컴'은 도쿄예대 연구생들의 불상 복원을 특별보도했다.

이번에 복원 제작된 집금강신 불상은 일본의 국보로 일본에서도 희귀한 8세기경의 소조건칠 불상이다. 소장처인 토다이지의 전승에 따르면 이 불상은 사찰이 창건되기 이전에 조성됐으며 초대 주지를 지낸 료벤 스님의 원불로 전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 불상은 감실에 소중히 봉안되어 토다이지에서도 1년에 단 하루만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덕분에 높이 170cm의 커다란 소조상은 채색을 포함한 모든 보존 상태가 뛰어나 미술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실물 복원된 집금강신 사진출처=닛폰닷컴

복원팀은 "집금강신상이 입고 있는 갑옷의 형식으로 보아 당시 실크로드에서 무역상으로 활약했던 이란계 소그드인 무장을 본뜬 것으로 추정한다. 매우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허리 장식 등에서 불상의 제작이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실크로드의 어느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조건칠 제작법은 당시 선진국인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후에 일본에 전해진 제작법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불상복원은 도쿄예대의 원로교수 야부우치 사토시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야부우치 교수는 토다이지가 소재한 나라시의 마스코트 캐릭터 '센토군'을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야부우치 교수는 10여 년전 종합 과학조사로 실측된 집금강신의 데이터를 이용, CG를 이용해 영상복원을 마친 후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실물 복원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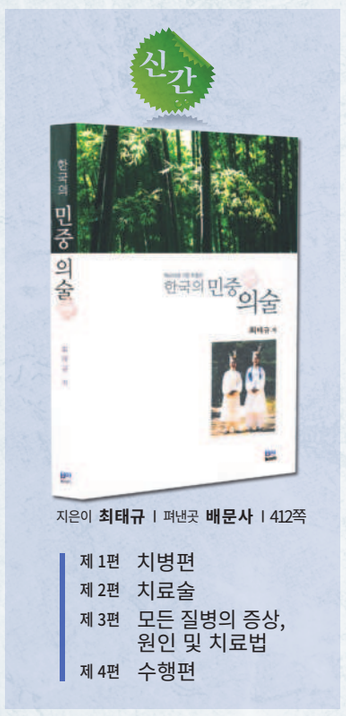
이번 복원작업에서 실제 제작을 맡은 연구생들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합쳐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정예. 이 중 중국과 대만에서 온 유학생 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 스텝으로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함께했다.

불상 복원의 실무를 맡은 시게마츠 유지 박사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건칠소조라는 제작기법과 보존 및 복원법을 1300년 전의 보은이라 생각하고 유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이 자국의 문화재 보호 및 복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복원작업의 의의를 전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불상이 조성된 당시의 극채색과 사용된 안료들을 이용해 복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나지 않는 일부 석채안료의 경우 중국에서 구해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채색팀 주임 이이누마 하루코 강사는 "1300년이 넘은 불상치고는 보존상태가 좋지만 채색의 열화가 일부 진행되어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연구실의 일본, 중국, 대만 3국의 학생이 모여 불상을 채색하는 모습은 1300년전, 어느 불상공방의 환영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집금강신상의 채색에는 운간법(繧繝法)이라는 특수 채색법이 사용돼 채색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했다. 복원된 집금강신상은 내년 봄 원본이 소장된 토다이지에 봉안되며 오는 11월 19일부터 도쿄예술대학 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100만 고려 승려의 비밀, '수원승도'



이상근의
聖寶流轉

㉒ 개경의 수원승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있는 개경 현화사 석등. 고려 인종 때 일어난 이자겸의 난에서 개경 현화사 수원승도 승려 300명이 이자겸 편에 서서 왕당파와 일전을 벌였다. 당시 현화사에는 출가한 이자겸의 장남 의장이 있었다.

'고려시대 불교가 흥성했다' 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도 실제 규모를 기술한 자료를 보여주면 놀라는 사람이 많다.

200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완간한 〈신편한국사〉에 따르면 나말여초 승려의 숫자를 전체 인구의 1/3로 추산하고 있다.

당시 정확한 인구 통계는 없으나 각종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고려가 막 멸망하고 4년차에 접어들 무렵인 조선 태조 4년 2월 19일자 〈조선왕조실록〉 기사에는 대사헌 박경이 상서를 올리며 "백성 가운데 승려의 숫자가 10분의 3"이라고 명토박아 말하고 있다.

중국 사서의 기록은 좀 더 많다. 〈송사(宋史)〉 고려전에 따르면 "고려 인구는 남녀 21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병(兵), 민(民), 승(僧)이 각각 1/3" 이라고 적고 있다. 실록의 기록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다.

개인 문집에는 이 숫자가 더 올라간다. 이규보와 이색은 개인 문집에서 '백성의 반은 승(僧)' 이라고 묘사했다.

여하튼 송사에서 기록한 대로 고려 시대 인구를 210만으로 잡으면 70만 명 이상, 최근 통계청 〈인구대사전〉에서 추정한대로 500만 명으로 잡으면 150만 명 이상이 승려였던 셈이다.

그런데 〈송사〉의 기록대로 병이 1/3, 승이 1/3이면 민 1/3이 나머지 2/3를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다. 이게 가능했을까?

가능했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토지다. 고려 말 사찰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체 국토의 약 1/8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와 백성의 지원은 물론 사찰 자체적으로 그 많은 승려의 뒷바라지가 가능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님들이 땅을 갈고 김을 매지 않았을 터이니 토지가 1/8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경작해야 하는 건 어차피 민(民)이었고 그러면 도긴개긴이 아니냐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바로 '수원승도(隨院僧徒)' 라는 존재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원에 '예속된 하급 승려' 라는 규정도 있고, '일반 하층계급이 입산해 형성된 승려층으로 노비와 다름없다' 는 주장도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주장은 다르지만 수원승도는 승려와 노비 사이의 어떤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승려 70만 혹은 150만 명의 '비밀' 은 이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숫자다.

1/4은 '승려' 3/4는 '승도'

수원승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고려시대 출가제도를 좀 살펴봐야 한다.

고려시대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은 장면을 묘사하는 문서들을 보면 '관단(官壇)' 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계단(戒壇)이라는 뜻이다. 사미계까지는 불교계 자율에 맡겼지만 이후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려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관리했다.

그런데 이 관단에서 수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선 향 · 소 · 부곡(鄕 · 所 · 部曲)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대개 전쟁 포로나 역모죄인이 모여 사는 동네거나 또는 민란 발생 지역이었던 곳이다. 또 한 군데는 진역(津驛)의 주민들이다. 강이나 내 등에서 나룻배가 닿고 떠나던 곳이라 출가를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양계(兩界) 지역 출신들이다. 시기에 따라 증감은 있었지만 대개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 해당한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 제한' 만으로도 출가할 수 있는 인원은 현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에 한 집안에서 출가할 수 있는 숫자 제한까지 뒀다. 정종 2년에는 '아들이 네 명(이상이)이 있는 경우 한 명의 출가를 허락' 했고, 문종 13년에는 이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아들이 세 명(이상)이 있는 경우 한 명의 출가를 허락' 했다.

여하튼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누구나 함부로' 승려가 되는 것은 철저히 법으로 금지되었다. 당연히 공사노비가 출가하는 건 불가능했고, 문종대에 이르러서는 향 · 소 · 부곡을 넘어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 주민들의 출가도 막았다. 현종 대에는 여성 출가를 엄격히 금지했고, 충숙왕 대에 이르면 도첩을 발행했는데 조건은 포

각종 사료에 "승려가 30%" 기록
고려 인구 150만 명이 승려인 셈
무분별 출가 막고자 출가 제한해
사원전 부역하는 '수원승도' 형성
75%가 승도 이고 25%만 수행승

50필이었다. 당시 무명 한 필이 쌀 다섯 말에 해당하는 가치였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계속 이런 '금지' 조항이 생겼다는 건 이런 사람들의 출가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특히 정식 승려가 아니었지만 사찰에서 비승비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찰 근처의 민가에 살며 사원 소유의 토지를 경작했다. 당연히 사찰의 토지를 붙여먹고 살았으니 수확의 일정량은 사찰에 내야했다. 필요하면 사찰의 각종 잡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에서 사원전을 지급할 때 대개 노비도 딸려 보냈는데 그들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부역을 피하기 위해 온 사람들, 혹은 무전민일 가능성이 높다. 송나라 사절 서긍이 한 달 동안 고려에 머물며 저술했던 〈고려도경〉에는 '수원승도' 로 추정할 만한 사람들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서긍은 그들을 '재가화상' 이라고 불렀다.

"재가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흰 모시의 좁은 옷에 검은 색 끈으로 허리를 묶고 맨발로 다니는데, 간혹 신발을 신은 자도 있다. 거처할 집을 만들며 아내를 두고 자식을 기른다. 그들은 관청에서 기물을 져 나르고 도로를 쓸며 도량을 내며 성과 집을 수축하는 일에 종사한다. 변경된 정보가 있으면 단결해서 나가는데 비록 달리는데 익숙하지는 않기는 하나 자못 씩씩하고 용감하다. 군대에 가게 되면 스스로 양식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나라의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서 전쟁을 할 수 있다. 듣기로는 거란이 고려인에게 패한 것도 바로 이 무리들의 힘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사실 형벌을 받은 복역자들인데 이쪽 사람들은 그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아버린 것을 두고 화상이라고 붙였다."

그렇다면 실제 '공인' 된 승려와 수원승도의 비율은 어떻게 되었을까? 15년 전 동국대 역사교육과 임영정 교수는 〈고려시대 수원승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 을 분석하며 "통도사에 4천 명의 승려가 거주하였고 이중에 1000명의 승려는 매일 본사를 왕래하며 사리 가사를 첨례하는 등 수도생활에만 전념했고, 3000여 명은 사역승"이라고 밝혔다.

비록 한 사찰의 예이긴 하지만 1/4만이 수도에 전념하는 '수행승' 이었고 나머지 3/4은 사찰 토지를 경작하거나 사찰의 잡역에 동원된 '승려' 였다는 것이다.

격변기 역사와 수원승도

〈고려도경〉의 묘사에서도 얼핏 보이듯 수원승도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비승비속으로 살며 사찰과 관련된 '일' 을 했다는 것뿐 아니라 '무장' 을 했거나 '무장' 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사찰의 사병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고려사 격변기에는 수원승도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우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들을 차출해 군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승도를 뽑아 항마군을 만들었다. 나라 초기부터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원에 모두 수원승도가 있어 항상 노역을 담당하였는데, 마치 군현의 거민과 같고, 항산(恒産-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많아 천백에 달하였다. 매번 국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중앙과 지방의 여러 사원의 수원승도를 징발하여 여러 군부대에 분속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시대가 '격변' 에 접어들자 수원승도도 사찰에 따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었다. 인종 2년 왕당파가 외척 이자겸의 수하인 척준경의 아들 척순, 척준신 등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자겸의 난에서 당시 현화사 승려로 출가해 있던 이자겸의 아들 의장(義莊)은 개경 현화사 승려 300명을 끌고 와 왕당파와 일전을 벌인다. 왕당파는 승려들의 기세에 밀려 쫓겨나고 인종도 선위하겠다는 문서를 이자겸에게 건넨다. 평소 훈련된 무장 세력이 아니었다면 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왕을 옹위하기 위한 수원승도의 반란도 여러 건 있었다. 횟수가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으니 사찰 이름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록 하나만 더 살펴보자. 〈고려사〉 열전 최충헌조의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흥왕사(興王寺) · 홍원사(弘圓寺) · 경복사(景福寺) · 왕륜사(王輪寺) · 안양사(安養寺) · 수리사(修理寺)의 승려로 종군하는 사람들이 최충헌을 죽일 것을 모의한 후, 패잔병으로 가장하여 새벽에 선의문에 와서 다급하게 외치기를, '거란군이 이미 도착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문군이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자, 승병(僧兵)들은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수문군 대여섯 명을 죽였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찰들은 대부분 개경 도성 안팎에 위치한 사찰들이다. '수도권' 에 있는 사찰이니 친위대나 반란군이 되기 쉬웠다. 또 왕실과 권문세가들은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식을 출가시키거나 사찰의 단월이 되었다.

이렇게 수원승도의 존재와 역사적 격변기에 그들이 활동했던 무대는 대부분 개경이었다. 물론 지역의 대찰에도 수원승도의 존재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치의 무대인 개경에서의 '활약' 이 사서에 자주 등장한다.

개경(개성)은 지금은 북녘 땅이라 당연히 갈 수도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꽤 많은 유물이 서울에 남아 있다. 물론 사찰이 아니라 박물관이다.

물론 제일 유명한 유물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다. 규모나 조각 솜씨로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지만 앞에 이자겸의 난에도 등장했던 현화사의 유물 하나도 몹시 눈길을 끈다. 석등인데 그 규모만으로 사찰의 위세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박물관에는 한때 남계원 7층 석탑이라고 불렸던 개국사 탑 등 꽤 많은 개경 '출신' 사찰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21세기 스피치는 능력 발현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⑦ 전법 소프트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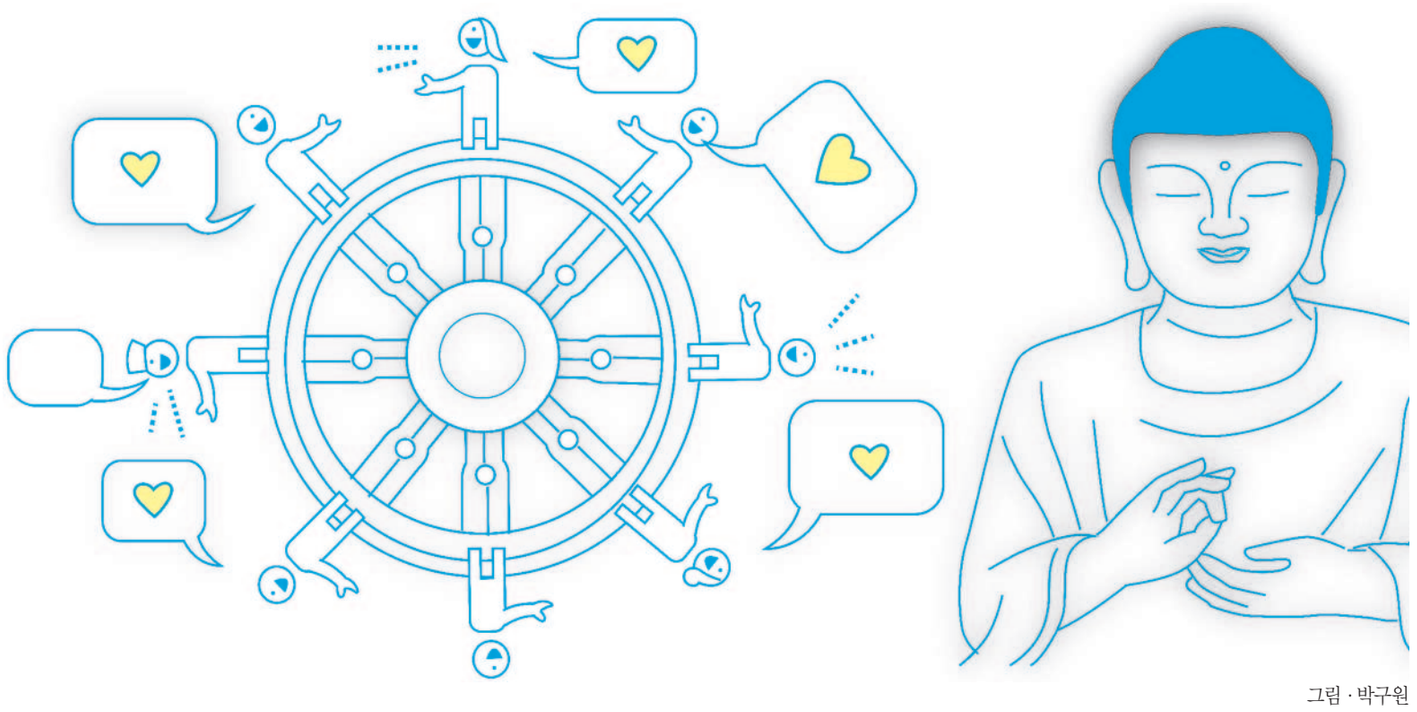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재가불자 불교스피치 이렇게

우리 재가불자의 모습은 첫째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소원성취기도, 둘째 깨우침을 위한 수행, 그리고 셋째는 경전공부 및 교리공부 등 빠른 복덕구족으로 소원성취 및 지식정보 습득 등이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불자의 자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근본 핵이 빠졌다. 바로 포교, 전법행이다. '불교'의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우리가 좋은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불교'라고 지명해 놓은 것도 아니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과 우리 몸속의 보이지 않는 세포에 붙어있는 생명들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가리킨다. 즉 미물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내 몸 밖의 모든 세상과 내 몸속의 모든 생명들까지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해 혼자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표현해줘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은, 불법을 주변에 전하는 언행이다. 이는 곧 재가불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당위성으로서 불교를 전하는 행위와 함께 공감하고 나누려는 자비행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이야기의 시대, 소프트웨어의 시대이며 스피치의 시대다. 더구나 세계화시대에 많은 지구인이 동시대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하며, 직접 만나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의 섞임 시대' 즉 문화의 패치워크시대로서 다문화시대의 핵심은 다종교다. 어쩌면 문화 뿐 아니라 정치나 경제 그 이상의 모든 인류의 핵심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서로 공유하는 삶의 양상이 비슷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화 -> 다문화 -> 다종교로 펼쳐지는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며 전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 불교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려야 한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마침 한류의 거센 전파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 안에 흐르는 우리의 정신문화(Korean Spirits)는 불교사상이다. 숙성된 우리의 불교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한국정신을 불자들이 전해야 한다. 한국인 해외교포는 700여 만명이다. 특히 미국은 한인들 세계에서 개신교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동포들 사이에서 사람을 만나려면 당연히 교회를 나가야만 한다. 한인 중 개신교는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불교는 6%도 못 미치고 있다. 미국보다 유럽인들은 훨씬 더 종교적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인 종교로 여겨왔던 가톨릭교의 정체된 모습을 본다. 이슬람계 이주민들은 그들이 지켜온 문화와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반면 유럽인들은 무슬림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유럽 연합의 등장과 함께 도태된 유럽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과 그에 따른 경제 침체, 실업률과 범죄율 증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밀려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와 더불어 쏟아져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문제 등으로 유럽인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일 거대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유럽 대륙에 불교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독일의 불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불자들의 포교에 대한 적극성보다는 독일의 자구책으로서 불교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할 때에 적극적인 포교행이 병행되면 더욱 활성화하는 데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불자들은 이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말은 곧 능력이다. 당장 바로 옆 사람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소문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듯이 맛있는 것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우리의 정의 문화다. 불법의 향기가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불자라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자세이다. 내게 좋은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다. 불법의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바퀴는 더 이상 바퀴가 아니다. 불교는 박물관의 부처님이 아니다. 생활 속의 부처님, 일상의 부처님으로 모시는 일이 곧 포교이자 전법이다. 배운 만큼, 들은 만큼, 감동받은 만큼, 환희심을 경험한 만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말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한 전법과 전도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이자 불자의 도리, 불자로서의 공덕이자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법과 전도는 불자 의무
불교 소프트 파워 키워야
새 문화 형성의 촉매되자

불법전도의 상징인 수레바퀴

불상시대 이전, 무불상시대에는 부처님을 그리는 표상들(성스러운 나무인 무수나무나 보리수나무, 사라수 그리고 윤보(輪寶) 즉 법륜을 상징하는 수레바퀴모양, 삼보표치(三寶標幟 · 윤보 위에 山자 모양의 장식을 붙인 것으로 불법승 삼보를 상징), 불족적(佛足跡 · 윤보무늬가 선명한 부처님 발자국이나 발바닥), 불좌(佛座)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수레바퀴가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전법을 상징하며 또한 강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불상시대 이후 여러 모양의 불상들 중 와불에서는 부처님의 발과 발바닥이 강조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발바닥에는 항상 전법륜 즉 수레바퀴가 새겨져있다. 이는 45년간 평생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설법을 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바퀴의 유래를 보면, 기원전 3~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으로부터 시작돼 코카서스, 북유럽 등지에서 발명이 되었다. 그리고 유라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된다. 전염병이 쉽게 창궐하는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람과 가축에게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키는 것을 우려해 전파되기 힘들었고, 아시아의 타이가지역(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등 추운지역)에서는 도로내기 조차 힘들어 바퀴는 전파되지 않았다. 타이가에서는 여름에 대부분의 땅이 진흙땅으로 변하는 관계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메리카 문명에는 수레가 없었다. 초기엔 신적인 신성한 루트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신만이 사용되는 것이지 인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바퀴의 발명은 지금의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물건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과 이주, 여행, 정복, 전쟁 등이 생겨났다. 바퀴의 발명은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고 종교의 발달과 전파도 이 바퀴로 인한 것이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융성한 곳은 의례길이 잘 들어서고 그 길 위에 수레가 다니곤 했다. 박지원도 청나라에 가서 놀래서 감탄한 것이 수레도로였다. 열하일기에서 그는, 우리도 수레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러워했다. 이러한 바퀴는 많은 지역을 오가며 문물을 교환하고 낯선 이들과 만나고 색다른 문화를 접하며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촉매제역할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바퀴를 부처님 설법과 전도의 상징물로 사용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역시 바퀴의 기능에 맞게 불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만나며 흡수하고 수용하면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틀을 만들어 갔으며 새로운 불자들도 양상되었다. 이것이 다 전파, 전법, 전도, 포교라는 힘이었다.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을 위해

사람이라면 남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공포심으로까지 느끼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이러한 대중공포, 연단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배우고 익혀서 계속 앞에 나가 서서 말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불심이 가득 차올라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삶의 의미까지 새겨진 불자라면 부처님을 위해 앞에 나가 불교에 대해, 나의 불심에 대해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두려워 마다한다면 불심에 대한 사랑과 의미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다. 말은 해봐야 하며, 해보면서 시간과 공간의 압축적 묘미를 터득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경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자들의 모임대로 스피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서로 돌아가며 스피치하는 경험을 공유하며 전도의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 포교, 전법을 위한 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교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론과 실전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불법을 전하는 재가불자는 교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체득했을 때의 자신감과 신심증득을 토대로 남을 위해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자신이 말해야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하는 기술을 증득해야 한다. 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며 공감을 위한 기술이다.

둘째, 포교의 목적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남 앞에서 말하는 행위를 자랑하거나 잘난 체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포교의 자질을 상실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서 포교는 성스러운 자비행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라는 말씀은 법을 설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적절하게 법을 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포교스피치는 말과 진실성의 실천수행이다. 누구든지 어느 때 들어도 오해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법이 필요하다. 또한 설법자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말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에 불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발음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발성과 적절한 구사력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여지는 자비스런 표정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신의 수행과 마음닦음, 긍정으로의 명상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고 진실된 표정이 만들어져야 이에 맞는 음성과 표현력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청말, 시대 아우른 수행법 부재로 몰락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㉒ 청나라 선종 역사



그림 · 강병호

청대의 불교는 청나라 순치원년(順治元年, 1644)에서 선통(宣統, 1911)까지 268년간을 말한다. 청대의 불교 정책은 거의 명대의 것을 계승했다. 먼저, 불교의 관리 방면에서 명대의 승관 제도를 따랐고, 수도에 승록사(僧錄司)를 설립해 중앙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게다가 승관(僧官)의 직별(職別) 및 명칭도 명대와 다름이 없다. 청대 불교의 각 종파도 역시 명 말의 유업을 계승했으며, 모든 종파 가운데서 선종이 가장 성행을 했고, 다음으로 정토 천태 화엄 율종 법상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청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소수민족이 통치했던 국가이다. 청나라 정권이 중원 땅으로 입관(入關)하기 전에 청나라는 대체로 살만교(薩滿教)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들은 중원 땅에 입관한 후에 비로소 중국 사람들의 종교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청나라 세조인 순치황제를 시작으로 선종의 선사들과 교류를 갖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순치황제가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 죽자 너무 무상함이 절실해서 출가를 결심하고 머리를 삭발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모친인 효장황후가 급히 남방의 임제종 선사인 옥림 통수(玉林 通琇, 1614~1675)를 궁전으로 모셔와 출가를 만류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당시 순치황제는 일찍이 "짐은 장차 문교를 일으키고, 유술을 숭상할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순치황제가 유교를 숭상하고 문교를 일으킬 때, 비로소 선종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그가 먼저 선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은 감박 성총(憨璞 性聰)으로부터이다. 감박 성총은 순치황제에게 선종의 역사 및 분포 정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었다. 그로 인해서 순치황제는 선종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순치황제에게 전국의 유명한 고승들의 명단을 알려주었고, 순치황제는 그들 모두에게 북경으로 와서 황제를 알현하라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다. 그중에서도 강남의 임제종 선사인 옥림 통수를 중용하였다. 또 순치황제가 참선을 좋아해서 승려들과 공안 화두를 참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순치황제의 아들 강희황제(聖祖)는 비록 선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선승들과 왕래가 있었다. 또 그는 일찍이 명대 임제종의 선승인 비은 통용(費隱 通容, 1593~1661)이 저술한 〈오등전서(五燈全書)〉의 서(序)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청대의 황제 가운데 선종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아는 황제는 옹정제(雍正帝)이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짐이 소년시절에 내전을 열독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오직 사모(동경)한 것은 불사일 뿐이다. 모든 공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로(解路)로써 깊이 탐구해 보았지만, 마음으로 선종을 경시했다. 이른바 여래 정교는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청대의 사료서인 〈동화록(東華錄)〉에서 그는 스스로 "정미롭게 이학(理學)의 근원을 탐구하고, 성종(性宗)의 이치를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한가로울 때 승려들과 더불어 내전을 담론하였다"고 했다. 이같이 그가 선종에 대한 태도는 선종은 여래 정교가 아니라고 여겼으며, 선종의 송고공안(頌古公案)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선종의 전적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였는데, 그의 결론은 "설사 어록을 방치할지언정, 다시는 재차 20년을 열람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짐이 열독한 〈지월록(指月錄)〉, 〈정법안장(正法眼藏)〉 〈선종정맥(禪宗正脈)〉 〈교외별전(教外別傳)〉 등의 책은 고덕들의 기연어구(機緣語句)를 가린 것일 뿐 모두 복잡하고 이치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어제간마변이록(禦製揀魔辯異錄)〉에서 선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즉 한월 법장(1573~1635) 계통의 선어를 매우 싫어했고, 밀운 원오(密云 圓悟, 1566~1642) 계통의 법어는 칭찬하였다. 이외도 그는 〈어선어록(御選語錄)〉에서 그가 이해한 관점에서 역대 선사들의 어록과 저작을 선택해서 평론하기도 했다.

선종은 명나라 말엽까지도 계속해서 흥성하는 분위기였으며, 청나라 초에도 그러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대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총림으로 눈을 돌리거나, 혹은 현실에서 도피해서 스스로 유유자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풍조는 민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때의 선종은 새로운

교리와 사상 체계 큰 발전 없어
청말 선종, 사회적 영향력 부재
각종파와 융합거치며 자태잃어

교리체계 및 사상체계를 창조하지도 못했다. 다만 선적(禪籍) 정리와 예술 방면에 약간의 창작이 있기는 했다. 예를 들면 선적 방면에서 적지 않은 승려들이 선종에 관한 등사(燈史)를 저작했고, 선화 방면에서 보하(普荷) · 점강(漸江) · 팔대산인(八大山人) · 곤잔(髡残) · 석도(石濤)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이들이 그린 선화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서도 점강(漸江) · 팔대산인(八大山人) · 곤잔(髡残) · 석도(石濤) 등은 선화 방면에서 청초의 4승(淸初四僧)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청 초의 선종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명 말엽 청 초의 선종은 본래 강남을 위주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대략적으로 종파는 임제종 계통의 천동계(天童系)와 반산계(磐山系), 조동종 계통의 수창계(壽昌系)와 운문계(雲門系)가 유행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서 광동성 복건성의 선종은 강서(江西) 절강(浙江)지역의 유행 추세를 뛰어넘었다. 북경의 선종은 완만하게 발전하였는데, 그 원인은 북경에는 각종 종파의 사원이 집중되어 있었고, 청나라 황실은 라마교를 신봉하면서, 중국(漢族)사원은 대부분 개인 위주의 경영을 하다 보니 발전 속도는 라마교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당시 동북지방의 선종은 거의 영향력이 없었으며, 어떤 선승들은 동북지역의 신도들이 특별한 요청을 하면 전법을 했다. 이외도 사천성 협서성 등 지역에서도 약간의 선승들이 전법활동을 하였으며, 발견된 비문에 보면 임제종 조동종이 균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파촉(巴蜀, 중경)과 서남지역(운남 귀주)은 파산 명해(破山 明海, 임제종) 계통의 지파(支派)가 가장 많이 발달했다.

명 말 임제종과 조동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임제종의 천동 밀운(天童 密云)계 · 한월 법장(漢月法藏, 1573~1635) · 비운 통용(1593~1661) · 목진 도서(木陳 道忞, 1596~1674) · 파산 명해(破山 明海, 1579~1666) 등 네 지파가 가장 번성하였다. 이 가운데 파산 명해는 사천성 일대에서 임제종의 지파로 이름을 떨쳤다. 이외도 각 지파의 법을 이은 제자들이 각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반산 천은(磐山 天隱) 계통은 약암 통문(箬庵 通問)과 옥림 통수(玉林 通琇)가 유명하다.

조동종은 수창계(壽昌系)와 운문계(雲門系) 두 지파가 비교적 중흥했다. 중원 땅에 청나라가 입각하고 나서, 수창계는 무명 혜경(無明 慧經)의 법제자인 박산 무이(博山 無異) · 영각 원현(永覺 元賢) · 회대 원경(晦台 元鏡) 등이 각각 명성을 떨쳤다. 이 가운데 박산 무이가 강서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참선 경어(參禪警语)〉를 짓기도 한 선사이다. 그의 문하 제자들이 영남(嶺南)과 강북(江北)에서 선법을 전하기도 했다. 운문계는 담연 원증(湛然 圓澄) 이후 그 세력이 매우 흥성했으므로, 당시 이 지역에서 활약했던 임제종의 천동계와 고하(高下) 및 상하(上下)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담연 원징 문하에 몇몇 뛰어난 선사들이 선법을 펼쳤으며 청 초까지 대종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명대 이후 선종의 각파 선승들은 경쟁적으로 등록 세보(世譜)를 지었다. 이러한 풍토는 청대에도 이어져서 더욱더 유행했다. 청대에 찬술된 〈전등록〉과 승사(僧史)는 적지 않은 저작이 남아 있다. 청나라 초에 선종의 풍토는 대부분 선사가 개당설법하거나 혹은 선사가 입적하면 그 문하의 문도들이 그에 관한 행장 및 흩어진 어록을 수집하고 집록해서 출판을 하였다.

한편 청대의 옹정제가 선종에 개입하고 개조한 후에, 청대의 선종은 명나라 말엽부터 간화공안에 대해서 제멋대로 하던 선풍을 강습(講習)이라는 풍조로 전환하였다. 그 후 청대의 사상에 대한 전제(專制)에 따라서 선종의 운명은 더욱 쇠퇴했으며, 청 말에 이르러서 선종은 이미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도 없었다. 더욱이 기타 종파 간에 서로 합류를 하면서, 선사들 대부분 참회기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회에서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사가 많았고, 게다가 그들은 적지 않은 불교에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들은 교리에 관해서 깊은 연구를 하였는데, 선종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각 종파의 교리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현상이 또한 선종을 몰락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선종이 청대에 이르러서 쇠락한 것은 역사의 변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즉 천하가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하게 되고, 합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지기 마련(天下分久必合, 合久必分)이라고 했듯이, 세월의 부침 속에서 선종의 흥망성쇠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을 겪었다고 하겠다. 때문에 중국 선종의 형성은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져서 중국인들의 눈높이 맞게 그들이 소화한 불교의 진수를 중국인들의 실제 상황과 현실에 맞게 수립된 종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청대의 선종이 시절과 함께 침체를 맞으면서 몰락을 가져왔지만, 선종의 몰락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은 아니다. 선종의 본래 임무는 활발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자세로 자성을 개발하고, 임운소요 자연무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종은 이러한 생명력을 잃어갔고, 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수행법도, 새로운 사상적 내용도 창조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각 시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때론 선종의 역할이 왜곡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대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새로운 안목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대에 순응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본래 색깔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몇몇 걸출한 선사들이 선종의 재흥을 꿈꾸어 보았지만, 청 말의 어수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자는 있지만 부화하지 못한 종자로 남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청 말의 선종은 결국에 각종 종파와 융합을 거치면서 거의 본연의 자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동국대 강사〉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기부지수 세계 1위’ 저력은 불교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㉒ 미얀마인들의 보시 사상

우리가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쉬울까? 오히려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기대심 없이 줄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친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일말의 기대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다. 예전에 한 친구가 스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해주는 것을 받기만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고민이예요”라고 하자, 스님이 “타인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 하는 괴로움을 스스로 얻지 말고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잊지 말라”고 대답해줬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 때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무주상보시’ 덕분에 나의 것을 누군가와 나눌 때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렸을 때는 기부와 경제적 능력은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금전적인 여유와 기부하는 마음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돈이 많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기부에 인색한 반면, 돈이 적더라도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울림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GDP순위가 12위로 올라설 만큼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여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세계기부지수는 우리나라가 GDP순위와 비례하지 않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GDP순위는 현저히 낮지만 세계기부지수에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 세계기부지수에서 2013년도에서 2017년까지 약 5년동안 미얀마는 1위를 달성했다.

미얀마가 세계기부지수 1위를 한 것에 많은 선진국들이 놀라워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미얀마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세계기부지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요인은 불교”라고 보도를 했다. 하지만 불교 국가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세계기부지수 상위권에 오르지 않았다. 미얀마 사람들의 생활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지를 역으로 추측해 봐야 한다. 미얀마 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는 나라가 많은데 ‘왜 유독 미얀마 사람들은 보시를 많이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미얀마에는 오래 전부터 불교의 영향이 미얀마의 정치, 문화, 언어, 가치관 등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미얀마 사람들의 삶이 되었다.

그러므로 보시는 불교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에 대한 지혜가 삶에 스며있어 욕심을 버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생활환경, 문화,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치관을 삶을 통해 배운다. ‘무아(無我)’와 ‘무상(無常)’에 관한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보시를 통해 그 의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 미얀마 사람들은 ‘십빠라미(10바라밀)’ 보살행(菩薩行)에 관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無我)’의 정신은 보살의 이타행(利他行)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0가지 보살행(菩薩行)의 첫 번째인 보시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미얀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보시’를 배우는 귀한 첫 경험은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미얀마 사람들은 탁발하는 스님들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서 보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한다. 아침이 되면 온 가족들이 밖으로 나가 스님들의 탁발을 맞아 공양을 보시한다.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아침 공양을 정성스럽게 보시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다. 미얀마 사람들은 집을 이사하거나, 가게를 열거나, 회사를 오픈하는 날 스님들을 모셔와 점심 공양을 보시한다. 스님들은 점심공양을 드신 후 정성을 다하여 미얀마 사람들에게 경전을 읽어주고 축원을 해 주신다.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 보시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다. 한 달에 몇 번씩 학과 앞에는 큰 가마솥에 닭국물과 국수가 배달된다. 학과 교수님 혹은 학생들의 생일이어서 생일인 사람이 학과 사람들에게 ‘점심’을 보시하는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경제 연구소에는 약 30명의 연구원이 일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미얀마 사람들이 자주 먹는 ‘모힝가(메기국수)’가 30~50인분이 배달된다. 생일인 사람이 자신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보시한다. 처음에는 아침에 국수가 배달되어 있어 놀랬지만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아침에 국수가 배달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일인 사람을 찾아 축하해주는 눈치를 기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생일인 날, 생일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주면서 축하해 주지만 미얀마에서는 생일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는 점에 놀랐다. 미얀마 친구들은 자신의 생일날 고아원, 병원 등을 찾아가 도시락 기부, 밥차 기부를 하는 의미있는 생일날을 보낸다. 미얀마에서는 자신의 동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 주변의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돈을 모아 어려운 동료에게 기부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다. 개인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이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큰 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미얀마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같다.

기부라는 것이 꼭 자신과 일면식이 없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기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속이 상하지 않아?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은 걸 수도 있잖아”라는 나의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 돈을 그냥 기부한 것으로 생각해”라며 더 이상의 괴로움을 스스로 얻지 않는 미얀마 친구의 반응에 놀랐던 경험도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기부를 받을 때 기부하는 사람에게 ‘Ahlu yay sat lat nae ma kwar(항상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축원을 해준다. 미얀마 사람들은 ‘보시’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못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돈)없어서 기부 안 한다. 기부 안해서 없다(돈)’라는 말이 있다. 즉, ‘지금 생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하게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미얀마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면 좋은 선업이 쌓여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믿는다.

미얀마에서도 최고의 기부는 타인 몰래 하는 기부이다. 한국에서는 보통 익명 기부를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모르게 기부를 한다. 이런 기부를 빵따구(Pankthaku)기부라고 하는데, 돈이나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물건을 길거리에 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본인만 알아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길거리에 다니지 않는 밤 12시가 넘어서 기부할 수 있다. 빵따구 기부를 하는 날은 보통 11월 ‘딴싸웅따잉’ 보름날이다. 혹시 11월 보름날 미얀마에서 길거리에 돈을 발견했다면 누군가가 익명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주워도 문제가 없다.

미얀마에서는 개개인마다 기부하는 것이 삶 그 자체가 되었다.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에도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미얀마의 대기업 중 하나인 MAX(맥스)기업에서는 U Zaw Zaw(우쩌짜)회장의 지시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어 기부했다. 미얀마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은 기부를 통해 얻은 선물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서 가끔 삭막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미얀마 사람들의 자애로운 눈빛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나는 얼마나 내가 소유한 것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준비가 되어있는가?’ 미얀마 사람들을 통해 기부가 꼭 수백억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곤대 박사과정〉



미얀마 MAX 기업의 우쩌짜 회장이 기부한 코로나 환자병원을 우표민 떼인 양곤주지사가 시찰하는 모습.



생일을 맞아 기부하는 도시락.

삶 속에서 ‘무주상보시’ 실천
10가지 보살행 중 첫 번째인
‘보시’가 인생 최고의 실천행
승가 보시는 물론 특별한 날
대중 모두에게 공양 올리기도



스님에게 공양 올리는 미얀마 사람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삼독 벗어나는 것이 '해탈'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㊹ 마음 · 부처 · 중생

"여러분! 그대들이 지금 눈앞에서 쓰고 있는 것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으니라.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밖으로 향해 찾아 헤맨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밖에서 구할 법이 없고 안에서도 얻을 법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산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는 것이, 찾는 마음 쉬어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느니라. 이미 일어난 것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10년 행각하는 것보다 낫느니라. 산승의 견처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느니라. 다만 평소 하는 대로 옷 입고 밥 먹으며 일없이 보내면 되느니라. 제방에서 온 그대들이 모두 뜻하는 마음이 있어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며, 해탈을 구하고 삼계(三界)를 벗어나기를 구하나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는가? 부처니 조사니 하는 말은 자신을 묶어두고 좋아하는 말일 뿐이니라. 그대들이 삼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가? 그대들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마음자리(心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욕계(欲界)이고, 그대들이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계(色界)이며, 그대들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無色界)이니라. 이 삼계는 그대들 집안의 가재도구니라. 삼계가 스스로 '내가 삼계다' 말하지 않느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의 눈앞에 뚜렷하게 만물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짐작해 헤아리는 사람이 삼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니라."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조사나 부처의 마음과 추호도 다름이 없다. 이 점을 임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마음 밖에 법이 없다'는 말은 이미 선가(禪家)의 상용어(常用語)가 되다시피 하였고 〈화엄경〉 경문에도 "마음과 부처,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법은 이미 나한테 있는 것이므로 밖으로도 찾을 것이 없고, 안으로도 찾을 것이 없다. 마음을 쉬어 가만히 있는 것이 10년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마음이 가는 길을 멈추라는 말이다. 언뜻 평소 생활 그대로가 공부라는 말로 들린다. 밥 먹고 옷 입고 활동하는 일상사를 떠나 별도로 하는 수행처가 없다는 말이다. 이 모두가 임제의 종지인 돈오돈수(頓悟頓修)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를 깨달은 분상에서는 똑같은 말이 빈번하게 나온다. 영가 진각(永嘉 眞覺, 647~713)의 〈증도가(證道歌)〉 첫 구절이 "그대 보지 못했는가? 배움을 끊어 할 일 없는 도인은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참된 것을 구하지도 않는다네.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불성이며 허깨비 같은 헛된 몸이 곧 법신이라네.(君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라고 하였다.

〈신심명〉을 쓴 승찬(?~606)이 출가 전 젊은 시절 풍질(風疾-문둥병)에 걸려 여러 지역을 방랑하다가 혜가를 만났다. 이때 서로 문답한 대화의 장면이 〈전등록〉에 나온다. 먼저 승찬이 여쭈었다.

"제가 몹쓸 풍질에 걸렸습니다. 청하오니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그대의 죄를 찾아온다면 참회시켜 주겠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미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버렸네. 마땅히 불법승(佛法僧)에 의지해 살아가게나."

"지금 스님을 뵙고 이미 승보(僧寶)는 알았습니다만, 무엇을 불보(佛寶)라 하고 법보(法寶)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불보이고 이 마음이 곧 법보이네. 법과 불이 둘이 아니며, 승보도 또한 그러하다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닙니다."

삼보가 마음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임제는 "삼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려는가?"라고 묻고 삼계가 다름 아닌 탐, 진, 치 삼독(三毒)이라고 이색적으로 말했다.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解脫)이라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망연을 끊어내면 곧 '성불'

〈妄緣〉



세상 속 경전읽기

㊹ 체로금풍(體露金風)

가로의 은행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바로 옆의 은행나뭇잎은 아직도 파랗다. 5m도 안 될 지척거리라 환경조건이 거의 같을 텐데도, 일찍 물길을 닫은 부지런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계속 물길을 열어놓은 게으른 나무도 있다.

집 뜰의 은행나무는 한껏 게으름을 부리다가 늦게야 황금빛으로 변했다. 간밤에 영하로 내려가고, 무서리 내린 아침에 보니 은행나무는 하늬바람에 잎을 모두 떨구어 앙상해지고, 밑동 주위에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있다. 풍성한 여름을 만끽하며 풍경이 울 때마다 부채춤을 추어대던 그였다. 이제 화려하지만 군더더기 속박이었던 황금빛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알몸인 채로 쨍하게 파란 하늘을 우러르며 사색과 인고(忍苦)의 겨울채비를 한 것이다.

송(宋)의 설두 중현(雪竇 重顯)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에서 참선에 참고가 되는 100개의 고칙(古則)을 선별하여 각각에 게송을 붙인 〈송고백칙(頌古百則)〉이 있다. 이에 송(宋)의 원오 극근(圓悟 克勤)이 수시(垂示) · 착어(著語) · 평창(評唱)을 덧붙인 것을 원오의 제자가 편찬 · 간행한 〈벽암록(碧巖録)〉의 제27칙은 다음과 같다.

"어떤 스님이 운문(雲門) 스님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하였다. "가을바람에 (앙상한) 알몸이 드러난다." [僧問雲門°樹凋葉落時如何 雲門云°體露金風]"

〈佛果圓悟禪師碧巖録 T2003_.48.0167b24-25〉

운문체로금풍(雲門體露金風)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고칙은 〈운문광진선사광록(雲門匡眞禪師廣録)〉에도 나온다. 여기에서 나뭇잎은 분별망상(分別妄想)을 뜻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별망상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금풍'은 가을바람이고, '체로'는 사물의 참 면모[本體, 眞貌]가 완전히 드러난 것을 뜻해, '체로금풍'은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지고 나목(裸木)만이 남듯이, 번뇌 또는 분별망상이 떨어져 순수한 본래의 진면목(眞面目)이 드러난다는 비유이다. 이는 곧 백장선사(百丈禪師)가 말한 체로진상[體露眞常, 참되고 항상한 본체의 드러남]이다.

"백장선사가 상당[上堂; 선종의 장로나 주지가 법당의 강단에 올라가 설법함]하여 이르되,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니 육근[六根;여섯 감각기관]과 육진[六塵; 여섯 감각대상]을 멀리 벗어났네 /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니[體露眞常] /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 심성[心性; 마음의 성품]은 (번뇌에) 물들지 않아 / 본래 스스로 원만하니 /다만 망령된 인연[妄緣] 여의면 / 곧 여여(如如)한 부처님이네. [(百丈禪師)上堂(曰):「靈光獨耀, 逈脫根塵。體露眞常, 不拘文字。心性無染, 本自圓成。但離妄緣, 即如如佛°」]"

〈五燈會元 卷第三(X80n1565_003) 百丈章 (0071a09) 중에서〉

이는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인 신령스러운 광명[靈光]이 청정하게 비침을 가리킨 요긴한 법문으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録)〉 권9 고령신찬장(高靈神贊章)에도 실려 있다. 고령사(古靈寺)의 강사인 계현(戒賢)에게 득도(得度)해 경문(經文)을 배우던 신찬(神贊)이 백장 회해선사(百丈懷海禪師)에게 가서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제자의 심상치 않음을 마침내 알아챈 수업사(受業師) 계현이 상당법문을 요청했고, 신찬은 백장의 위 법문내용을 설해 스승을 깨닫게 하여 보은하였다는 일화이다.

범부는 감각기관이 항상 밖으로 향해 있어 감각대상을 만나 오염된 채 망령된 인연[妄緣]으로 살아간다. 감각기관을 거두어 안으로 향해, 자성광명(自性光明)을 가린 이러한 망연을 끊어서, 신령스러운 광명이 스스로 빛날 수 있다면 이것이 깨달음이요 성불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㊿ 깨침의 길 5

'깨달음' 논쟁 촉발 '대천오사'

2004년도에 개봉한 〈아라한 장풍대작전〉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손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무림의 고수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라한을 절대내공을 지닌 신비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고 깨침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까지 아라한은 모든 수행자들의 꿈이자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그 위상과 권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불멸 후 200여 년경 마하데바(Mahādeva), 한역불전에는 대천(大天)이라 불리는 비구가 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는데, 번뇌를 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과 주장을 하였다. 그가 제기한 다섯 가지 주장을 가리켜 '대천오사(大天五事)'라고 한다. 이는 깨달음과 아라한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첫째는 여소유(余所誘)인데, 아라한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뜻이다. 어느 날 마하데바가 몽정을 하였다. 스승의 옷에서 그 흔적을 발견한 제자가 어떻게 모든 번뇌를 끊은 성자가 몽정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마하데바의 대답이 바로 "아라한도 꿈속에서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무지(無知)인데, 스스로 깨달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마하데바의 제자가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라한이 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더니,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답한 것이다.

셋째는 유예(猶豫)다. 이는 무지와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이 아라한이 된 것을 알기까지 시간적인 유예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깨치는 순간 '아!' 하고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과거 어느 때 자신이 깨쳤다는 것을 알기도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타령입(他令入)이다. 이것도 앞선 무지, 유예와 유사한 경우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무지와 유예, 타령입은 결국 '아라한의 자각'에 대한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다섯째는 도인성고기(道因聲故起)다. 성스러운 도(道)는 괴롭다는 소리로부터 생긴다는 뜻이다. 어느 날 마하데바가 무심결에 괴롭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제자가 들었다. 그러자 제자는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끼는지 물었고 스승은 깨친 사람도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라한은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하데바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끼며,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를 소멸하기 위해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5가지 문제제기로 인해 아라한의 권위와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몽정을 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성자, 자신이 깨쳤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라한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하데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은 성자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몽정을 한다면, 그는 아라한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마하데바의 의견에 찬성하는 수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라한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깨달은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붓다와 같은 완전한 경지(成佛)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라한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파불교에서는 여전히 아라한을 절대시했지만,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은 성불을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

대천오사는 깨달음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이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삶에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붓다처럼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때로 괴로움이 느껴지고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참회, 발원하고 더욱 정진하면 되는 일이다. 그것이 불자(佛子)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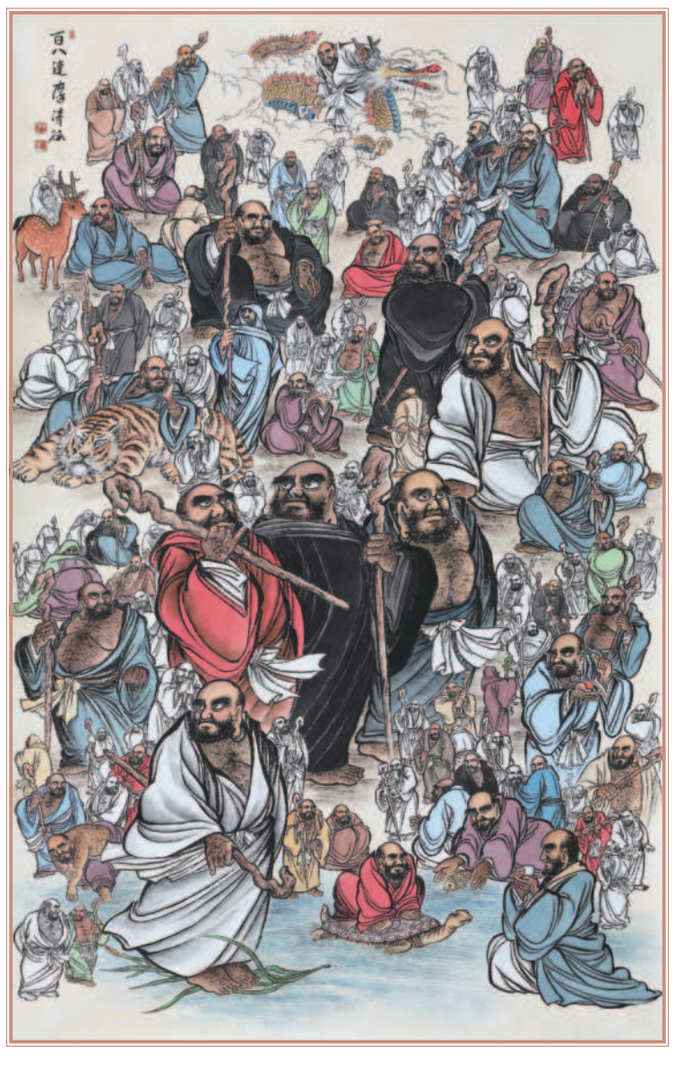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108가지 모습의
"달마" 대사께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번뇌는 원래 10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달마가 108가지의 모습으로 108가지의
번뇌를 물리쳐 줍니다.

달마는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는 분으로 인도의 불교를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는 분이다. 양나라의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서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였으나 어느날 한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 놓고 뱀 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새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총무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한점마다 수호신이되어 집안을 지켜 줄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 등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할것입니다.



•그림규격 : 75x140Cm •족자규격 : 85x175Cm
•가격 : 300,000원

•그림규격 : 44x75Cm •족자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 2점 동시 구입시 390,000원



▣ 수강생 모집 – 장소 : 인사동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은 마하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도, 풍속화, 산수화, 동자승 등을 지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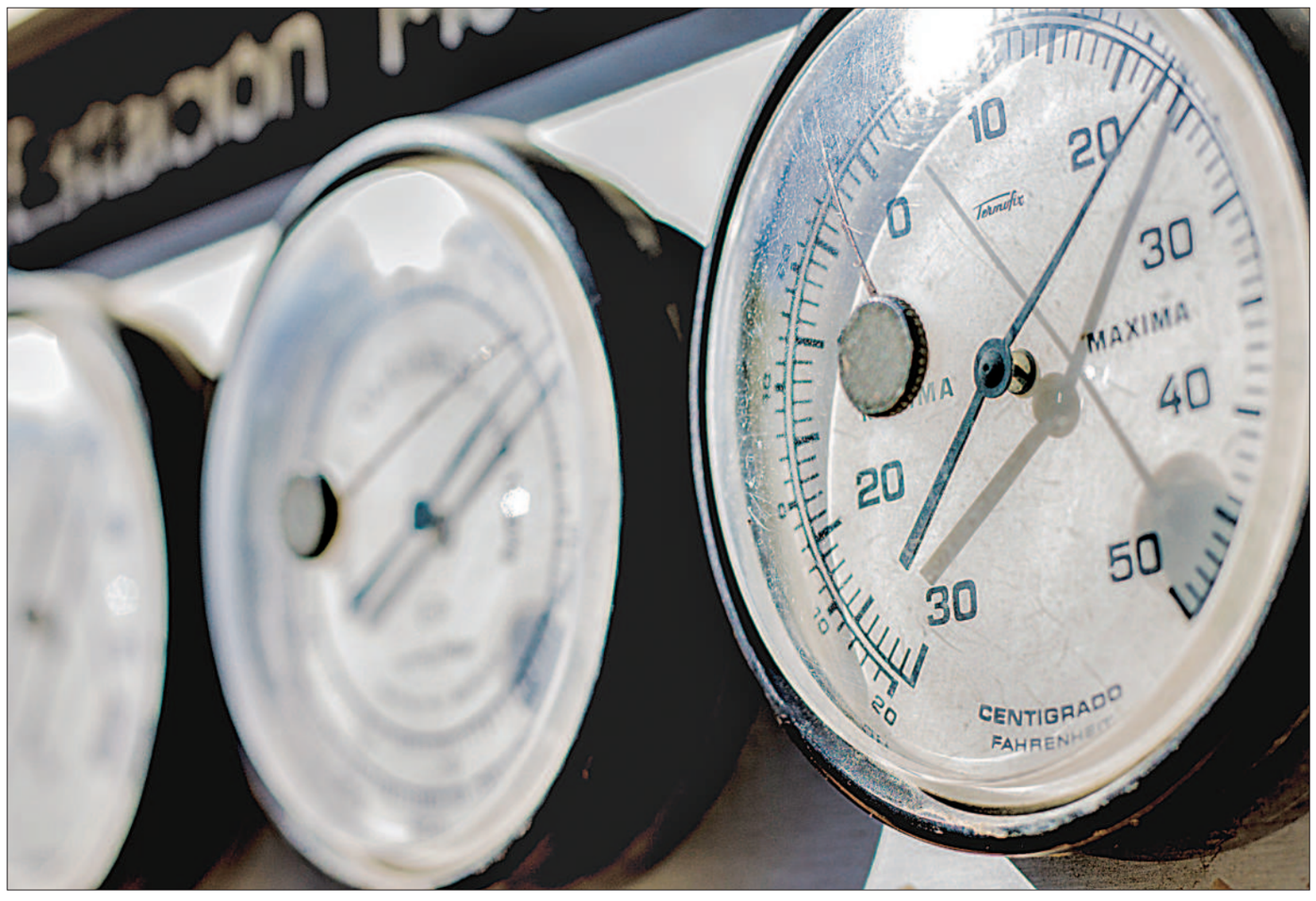
마음기압계 만들어 주시하라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5〉 마음 소음 제거법



몸의 메시지에서 멀어지는 이유

과거에 괴로운 기분과 느낌을 경험하면 자신의 감정을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기 쉽다. 이는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이 느끼는 불행감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면 뇌의 회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그런 나머지 호기심, 참여, 선의 같은 접근성 행위마저 억누르게 된다.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불편한 느낌과 신체감각에서 차단될 수는 있어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느끼는 능력마저 줄어든다. 불행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살아있음의 온전한 경험과 접촉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감정, 생각, 느낌, 신체감각을 피하려는 시도를 경험회피라고 한다. 경험회피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현상은 놀랍지 않다. 특정 주파수의 뉴스가 너무 자주 불쾌하면 채널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불편한 느낌과 신체감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의식의 주파수'를 다른 채널로 돌린다. 그런데 특정 느낌을 회피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 엔진소음에 귀를 닫는 것과 다름없다.

엔진 소음이 안들리게 하는 데 효과적일지 모르나 엔진이 퍼져버릴 수 있다. 심리학자 스티브 헤이스와 그의 동료들은 백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리뷰한 결과, 여러 형태의 감정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감정을 회피하고 거기서 도망가려는 건강하지 못한 시도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감정 경험을 구성하는 신체감각과 생각, 느낌을 차단하면 '마음의 엔진'에도 고장이 난다.

장기적으로 감정 회피는 원치 않는 불쾌한 느낌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불쾌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그 것은 계속 곁에 남아 습관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일시적 불쾌감이 지속적인 괴로움으로 변한다. 불쾌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쳐 불행감이 더 굳어진다.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불쾌감을 회피하며 의식의 주파수를 다른 채널로 돌린다. 그렇다면 불쾌감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우리의 내면 경험을 구성하는 한 가지 측면인 내면 기압계가 도움이 된다.

내면 기압계

새 집을 구할 때면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 방이 여러 개이고 평수도 넓으며 주변 편의시설도 완벽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어도 직감으로 안다. 당장 밖으로 나가고 싶어진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그런데 모든 느낌의 아래엔 특정 경험을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평가하는 척도가 존재한다. 이 척도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일종의 기압계다. 기압계가 매순간 대기의 압력을 표시하듯이, 내면의 기압계는 매 순간 우리 내면의 기압을 나타낸다.

날씨 정보를 얻으려면 기압계를 읽어야 하듯 내면 기압계도 읽는 법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내면 기압계는 어떻게 읽을까? 그것은 자신이 매순간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내면 기압계를 읽으려면 먼저 사람, 장소, 사건 등 모든 대상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자신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면 특정 경험을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직관적 감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즐겁다고 느끼면 그 경험을 오래 지속시키려는 반응을 일으키고, 괴롭다고 느끼면 어서 사라지길 바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특정 순간과 상황에 일으키는 자신의 연쇄반응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럴 때 앞서 말한 '좋다, 싫다' 등의 직감적 느낌과 그에 대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특히 혐오반응) 사이에 형성된 질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 우리 느낌 여러 차원 존재
> 각 느낌은 특정 경험 제공
> 내면 속 점검 척도 만들어
> 매순간 마음챙김 도움되길

슬픔, 분노, 혐오, 불안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의 아래에는 불쾌한 느낌이 자리잡고 있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수련은 해로운 감정을 미리 탐지하는 조기경보장치다. 내면의 기압계가 보내는 메시지에 충분히 주파수를 맞출 때 지금껏 외면한 불쾌한 느낌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약화된다. 그러면 불쾌한 느낌으로 혐오반응이 일어나 우울의 나락에 빠지는 일도 준다.

그렇다면 내면의 조기경보장치에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몸에 특정한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가져가는 것이다. 몸을 알아차릴 때 자기 내면의 기압계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감각과 느낌에 의식의 주파수를 맞추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자신이 특정 순간의 경험에 본능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평소의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특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다.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라 불행하고 슬픈 기분이 일어났다고 하자. 이때 기억의 정확히 어느 부분이 슬픈 감정을 일으켰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과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자신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다고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쾌한 느낌은 연쇄반응을 일으켜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자동으로 일어나던 연쇄반응이, 선택이 가능한 일련의 지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슬픈 기분을 불쾌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일어나는 혐오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마음챙김이다. 마음챙김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불행감과 함께 일어나는 신체감각을 알아차리면 신체감각과 기분에 들어있는 정보를 지혜롭게 활용해 마침내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불행감 자체에 응대할 수 있다. 불행하다는 느낌이 즉각 사라지거나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는 신체 경험을 알아차리면 지금껏 회피하던 감정과 다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이다. 처음에는 경험의 불쾌한 느낌과 그에 대한 형모반응을 뭉뚱그려 하나로 경험하므로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이든 한번에 하나씩만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불쾌한 느낌과 그에 대한 혐오반응이 뭉뚱그려진 전체를 몸 어딘가의 위축된 느낌으로 알아차린다.

위축된 느낌에 익숙해지면 불쾌한 느낌과 혐오반응이 뭉뚱그린 전체를 점점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것 자체로 큰 진전이다. 그런 다음, 바디스캔이나 몸 알아차림 수련을 통해 느낌에 들어 있는 불쾌한 성질을 가려낼 수 있다. 그러면 불쾌한 느낌과 그것이 일으키는 혐오반응이 별개임을 마침내 알아본다.

즉, 처음에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 혐오반응을 일으키며, 그렇게 일어난 혐오반응이 다시 불쾌한 느낌을 일으키는 식의 악순환이 지속됨을 관찰할 수 있다.

어깨와 허리가 뻐근하거나 이마가 당기고 턱과 배가 조이는 느낌은 몸이 흔히 일으키는 혐오반응이다. 호랑이를 만났건, 자신의 느낌과 만났건 우리는 싸움-도망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호랑이'가 우리 내면에서 오래 지낸 경우에는 몸이 일으키는 혐오반응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존이 그랬다.

그렇다면 불쾌한 느낌과 혐오반응이 뭉뚱그린 '전체'를 한 번에 하나씩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불쾌'라고 표시된 내면 기압계와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반응이 뭉뚱그린 신체감각을 알아볼 수 있을까? 바디스캔을 통해 우리는 이 과정에 들어선다. 바디스캔을 수련할 때마다 신체감각을 알아보는 무수한 기회가 생긴다.

바디스캔을 통해 유쾌하고 불쾌한 느낌과 그것의 즉각적 표현인 신체감각을 매순간 알아차린다. 바디스캔을 지속적으로 수련하면 신체 특정 부위의 느낌 뿐 아니라 바디스캔 마지막에 하는 몸 전체에 대한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다.

이제 무엇보다 전체로서의 자기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키워야 한다. 이럴 때 자기 내면의 기압계를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내면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 수 있다. 우선은 알아차림의 질과 수련에 임하는 기본 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마음 챙김 수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

어떤 동기와 마음의 태도로 마음챙김 수련에 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관심, 호기심, 따뜻함, 선의 등 다가가는 마음으로 자신의 신체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때 매 순간의 느낌과 더 많이 접촉할 뿐 아니라 회피와 혐오반응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배움과 마찬가지로 명상수련도 특정방식의 주의 기울임을 익히는 것 만큼이나 건강하고 친절한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8호 | 15 | 전면광고

근면 노력하여 청정심을 일으켜 많은 선행을 쌓아라. 그리하면 미륵불을 만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미륵하생성불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 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행자승, 스님 모십니다.
비구50세 이하 포항 원진사
010-3517-6099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010-5736-18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5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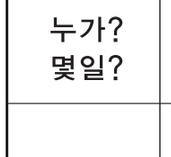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8호 | 16 | 전면광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쾌락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함을 가보처럼 여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7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지리산 청정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 청정지역
● 1200평 마당전체에 미륵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있음, 건물3동, 마당에 폭포, 방안에 편백나무 부착 되어있음, 주차장넓음
● 가액 : 7억(3억대출있음)

010-7104-1679

◈ ◈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 ◈

010-4752-0459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구성소재, 황금동 10분대(교통편)
● 법당 약20평, 주방 ·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필)
● 대지(도지료 1년 35만원)약100평
●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2차선 남김천대로변) ● 가액 : 4천 5백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2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토굴안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 대지 : 104평
●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 전세금 : 3천만원
● 시설금 : 4천만원

010-8567-36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도심 최고의 포교사찰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 2필지 200평 ● 건물 : 법당 50평
● 제일요사체 100평, 제이요사체 50평
● 사찰운영 양호
● 대출 10억 가능

010-9759-7152

전원주택·사찰·요양원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암로 1669
● 지방도로변 계획관리지역
● 대지 329평,전 421평, 임 385평
● 주택 34평, 황토방 1, 창고 50평
● 자연암반수 우물있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0-3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
● 총평수 : 756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법당 25평, 요사채 25평(조립판넬식)
● 가액 : 1억3천(상수도, 지하수)
● 마을에서 300m떨어져있음 (뒤에는 야산)

010-9504-7259

사 찰 안 내

◈ ◈ ◈
마당이 아주아주
넓은사찰
투자가치 100%
대출 9억안고 22억
◈ ◈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 (4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 요사체+휴게실+창고(30평), 산신각
● 가액 : 4억 5천만원
●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2층 65평
● 법당, 방3, 공양실
● 보증금 500, 월 35
● 권리금 2천만원

010-3715-2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5평
●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 가액 : 2억 8천
●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 입 종 안 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나라는 존재를 세울게 없는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주도에 와 본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에 두어 번은 올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루 이틀 익혀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먼저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스스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립해서 알아야 하고, 또 중용을 할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과, 업보, 유전, 조상의 문제 등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한 번 남을 망하게 했으면 네가 바로 그 업보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인과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苦)·집(集)·멸(滅)·도(道)'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고라고 하니까 고인 것이지, 고가 있다면 어떤 것이 고인지 내놔 보십시오. 집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집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을 한 번 때렸으면 너도 한 번 맞는다.' 이것을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때렸으면 한 번 맞는다 할 때 '아하! 때린 것도 나고, 내가 때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맞은 것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 때려 보고 한 번 맞아 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내가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업보가 붙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지수화풍(地水火風)입니다. 어떠한 물질이든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거 하나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주 개공(宇宙皆空)이 이 접시 안에도 들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도 지수화풍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이 자체는 집이지마는 그 지수화풍 속에서 생명체가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 어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자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터에 자식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뭣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죠. 아들 형제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지없이 잘 길러서 글방에도 보내고 했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근 여남은 살이 됐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아들 형제를 뒀지만 그 애들은 당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언제 적의 당신 아들이 아니라 지금 현생의 문제인데, 당신이 지은 죄과라기보다도 이 한세상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거미와 깻벌레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애릿한 의식이 한데 모여서 당신한테 아들로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면 부부가 깻벌레와 거미한테 잡아먹힐 시기가 되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원수 갚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원수가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일 모레쯤 돼서 겻불을 마당에다 두 무더기를 피워 놓고, 병아리 우리를 두르는 철망을 갖다가 둥그렇게 뺑 돌려서 치고, 공석때기를 쳐서 그 안에서 겻불이 타게 하는데, 그저 구멍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남겨 놓고 다 싹 돌려서 막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겻불이 타면서 연기가 꾸역꾸역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그러시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들 형제가 서당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이 먼저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남은 사람이 뚜껑을 덮어 준 뒤에 자기도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기다리되 아무리 '엄마, 배고파! 아버지, 배고파!'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 보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도 한 시간은 흐른 뒤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알 바가 있느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지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아버지! 엄마!" 하고선 그냥 온통 집 앞뒤로 찾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엉엉 울고 그러는데 항아리 속에 있던 부부는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끼 굶는다고 죽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 하고 그냥 욕설을 퍼부으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인간 환토를 했는데 아,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가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으냐.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느냐!" 하면서 둘이 욕을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밀을 알고 없어졌느냐." 하면서 온통 찾아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던 것이 싹 없어지고는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쫙쫙 끼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오줌독에다 넣고 죽였으니 우리도 잔인하게 피를 빨아 먹어야 할 텐데…." 이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쥐 죽은 듯 하고 있으니까, 얼마 있더니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 연놈들에게 원수도 못 갚고 어떡하느냐? 인제는 앞으로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원수 갚을 기회가 없는데, 어디 갔느냐!" 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다 얼마 있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시간 반을 있다가 나와 보니까, 하여튼 한쪽은 거미고 한쪽에는 깻벌레인데 말입니다, 오물오물하더랍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죽인 수효대로, 애 적부터 죽인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겻불에 엉겨 붙어서 죽은 놈도 있지마는 오물오물하는데 너무 징그럽고 너무 기가 막혔더랍니다. '그게 아들이었다니….'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로 뭉쳐졌다니….' 하구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 있나. 또 대의적으로 본다면 오대양 육대주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지구 벌레 아닌가. 그럼 지구가 우리 인간의 집이라면 그 집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찰나찰나 돌아가는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지켜보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의 그 오장육부에는 사생(四生)이 들어 있습니다. 화(化)해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생(濕生), 태로 나는 태생(胎生), 이런 네 가지의 종류를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생도, 태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고 알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화해서 나는 생명들도 많고 습생도 많습니다.

그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종류를 우리가 관찰해 볼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에 그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나의 한 혹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 "중이 무슨 그런 소릴 해!" 하겠지마는, 중이라는 것은 중심, 중용, 바로 우리의 원심력의 근원,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오신통(五神通)의 근본을 누진통(漏盡通)이라고 그러는데 누진통이라는 그 이름도 놔 버린 바로 그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사생의 문제가, 천차만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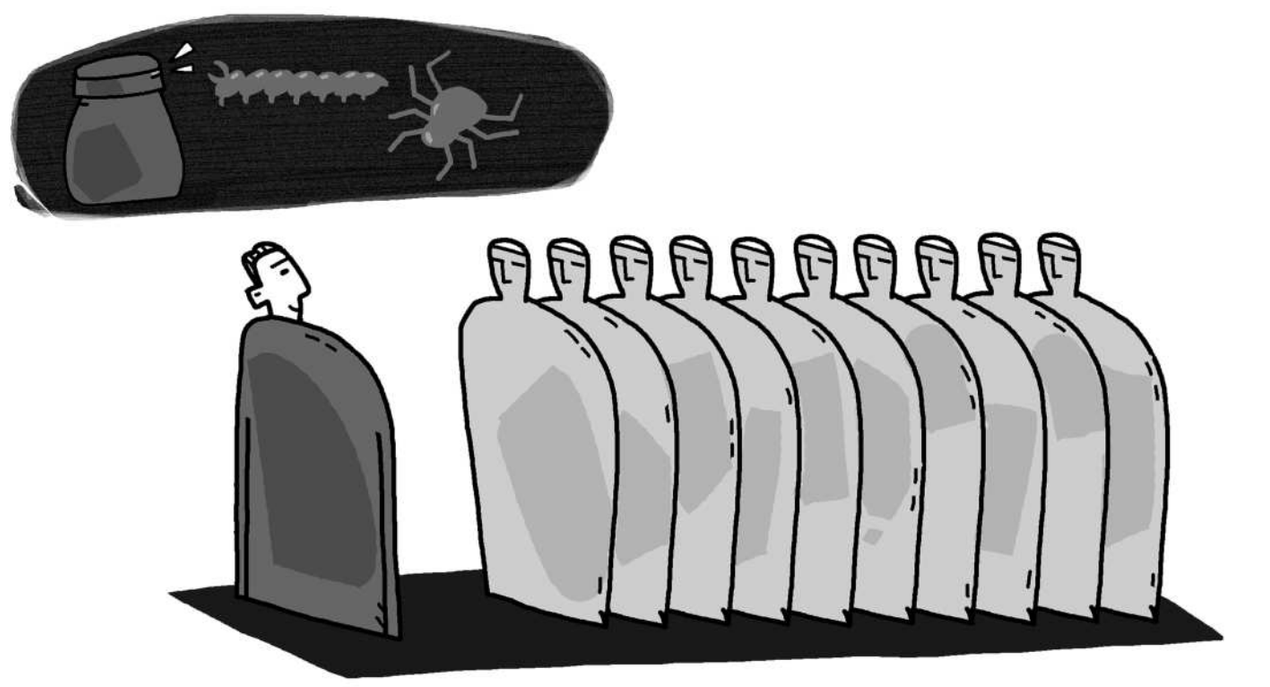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에서는 문체부 공모 사업인
«2020년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접수방법 : 이메일 jabi3719@daum.net
fax : 02-737-8802

문의처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사전 공지 사항

1. 본 프로그램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방식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프로그램의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2. 꿈 알 프로그램은 야외 체험수업이지만 개별 일일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고 시 개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모집대상(인원)	운영일정	장소(지역)	진행내용
차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게이트키퍼(12명 내외) & 자살유가족(10명 내외)	• 8회기 4주 과정 11월 23일~ • 매주 월, 목요일 10시~11시30분	불교상담개발원 (서울)	오감 차명상, 관불세심, 별처럼 듣기, 나누기, 선차무, 녹차 팩
		• 8회기 4주 과정 11월 24일~ • 매주 화, 금요일 14시~15시30분		
		• 2일 과정 12월 5일~6일 • 오전 10시~오후6시		
꿈 알	우울증 위험군 (12명 내외)	• 2일 과정 11월 23일, 30일	숲연구소 (서울)	숲의 생명체와 교감, 알아차림 명상 예술요가 명상, 잠재의식 꿈 알 키우기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
		• 2일 과정 12월 1일, 8일		
다깨기 (다시 삶으로 깨어나는 몸 마음 바로알기)	우울 고위험군 (15명 내외)	• 2일 과정 12월 12일,13일~ • 오전10시~오후7시	불교상담개발원 (서울)	호흡명상, 자애명상, 자비명상 등

자기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별로 들어 있는 문제가 인연 따라서 모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깡통의 마음을 썼다면 깡통의 마음 차원을 가진 것끼리 인연이 됐을 거고, 내가 금의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여서 이 몸이 됐을 거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쇠 쪼가리를 주워다가 금방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금을 무쇠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보석을 넝마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넝마를 보석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끼리끼리들 모여 인연 따라서 우리의 한 몸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십억 마리가 들끓다가 하나의 지도자만 남기고서는 그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 심령만, 바로 대장으로 뽑힌 그 물질 하나에 동일하게 같이해 줍니다. 그러면 임신이 돼서, 그 어린애가 자라는 대로 피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차원대로 같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는 대로 사생은 또 들어가는데 인연 따라서 차원대로 가서 같이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과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업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걸 구태여 업보다, 인과다, 고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아 달라 이런 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가 금이라면 바로 금의 인연을, 또 무쇠라면 무쇠의 인연을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본인 자체가 무쇠기 때문에 무쇠가 오는 거죠. 본인 자체가 금이라면 금이 올 테죠. 그래서 무쇠나 깡통이 서로 부딪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듯이, 한집안 가족이 서로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되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렇고 벌레들도 그렇고, 화생이든지 습생이든지 태생이든지, 모든 게 다들 쫓기며 쫓으며 잡아먹히며 잡아먹으며, 피를 흘리며 서로가 부딪치고 우는 이러한 것이 아마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벌레의 세계는 벌레의 세계대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각박하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인생살이 같습니다. 또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대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넝마면 넝마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을 붙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넝마는 넝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재생하는 대로 또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역시 또 무쇠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아궁이 뚜껑이 됐다면 아궁이 뚜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다시 나옵니다, 재생이 돼서. 인간도 역시 요 모습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그렇다면 업보가 없다는 생각과 있다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업보가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난데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이죠. 만약에 천차만별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가 있고 고정됨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도 인과도 업보도 거기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오고 가는 거 먹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진리며 부처며 법신(法身)이며 화신(化身)이며, 이런 것이 종합돼서 삼위일체로 회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벌레들의 마음인 의식 자체가 바로 자기 의식 속에 들어와서 한데 뭉쳐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해 가지고 아들로 나온 겁니다. 자기 인간의 모습 속에 그 생명체들과 모습들로 각각 해 가지고 나왔지마는 그것이 변해서 본래로 돌아가니까 그 깻벌레와 거미들이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말고 구더기가 파리가 된 거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파리는 구더기를 짊어지고 나왔던가요? 아니, 구더기를 버리고 파리가 달리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라면 자기가 전자에 구더기였다는 걸 모르고 구더기는 파리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전생을 꼭 바깥에 있는 줄만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말이지만 우리는 잠재의식 카세트에,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는 동안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살던 얽히고설킨 그 습이 모두 감겨 있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짊어지고 있다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각본대로 카세트에서 솔솔 풀려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팔자 운명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팔자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한 대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알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나의 근본 주처인 참나가 현재 나를 다지고 다져서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업보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모두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그 공한 자리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붙을 건덕지가 어딨으며 기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심나걸랑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내놔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카세트에서 각본대로 나오는 그 자체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녹음시킨다면 수억겁 동안 감겨 있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꿔 넣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채우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 그런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채워졌다 해도 틀리고 또 비었다 해도 틀리니, 채워지면서 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워지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여하게 지금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박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항상 '나' 라고 하고 내가 했다고, 남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또 내가 남을 망하게 했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산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뭐 이런 따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물질적인 50%만이 아주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50%의 안 보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대략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나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감개무량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관(五官)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과학이 발전이 됨으로써 또 그 물질한테 인간이 먹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 말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계에 말린다면 인간은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본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쌓아 온 습을 다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강도질을 했든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 한생각에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으니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러는데, 할머니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아내가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그 모습 하나를 가지고서 행은 자동적으로 항상 바꿔 가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가지 역을 하십니까? 식구가 여럿이면 이 식구 만나고 저 식구 만나고 그럴 때마다 자동적으로 역이 각각 달라지거든요. 남편 만나면 달라지고 아내 만나면 달라지고 자식 만나면 달라지고, 자동적입니다, 그건.

벌써 말,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달라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떤 거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는 판국이니 이게 광대무변한 이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그러는데 불교는 어떠한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불성, 영원한 불성,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법(法)은 바로 정하는 걸 말하고, 말하는 거는 교(敎)라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한 생각이 엄청난 문제를 자아낼 수 있어서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는가 하면 구덩이에서 꺼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몸에 수십억 마리의 사생이 들어 있는데, 그 수십억 마리의 마음들이 만약에 자기 주인공인 그 근본을, 주처를 세우지 않아서 주처가 없다면 빈집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아이들이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서 막 놀다가 그 저 집안도 망가뜨리고 이러는 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 속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어야 지금 수십억 마리의 모든 애들이, 마음이 말입니다, 집을 지킬 수 있다 그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들어갔다가 왕래를 하고 있고 딴 데서도 왕래를 하고 있으니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방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몸이 다닐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쓰러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 만약에 주인이 없어서 그 모습들이 왕래 없이 왕래를 하고 들락거리다 보면 내 몸은 벌써 어디 한군데가 망가지고 들어갑니다.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다 하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마음 하나가 벌레라고 합시다. 그 마음 하나의 벌레가 악이라 하면 악의 씨가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 있고 선의 씨다 하면 선의 씨대로 수천수만 마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도 고정됨이 없고 병도 고정됨이 없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연구해서 이것이 이 병의 약이라고 내놓아도 얼마 안 가면 그거는 벌써 무효가 됩니다. 또 거기에 맞게 달리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병 증세는 연방 나오고, 그러니 약을 자꾸 달리 연구를 해야 하는데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연구할 때 열 가지가 나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의 무서운 이치라고 볼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내 가정을, 내 사회를, 내 국가를, 세계를, 우주를, 이 모든 거를 우리가 극난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일단 들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급하면 생각납니다, 급하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자기한테 급한 일이 닥쳐오면 '아이구!' 하고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근본 자리에는 업보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그 공한 자리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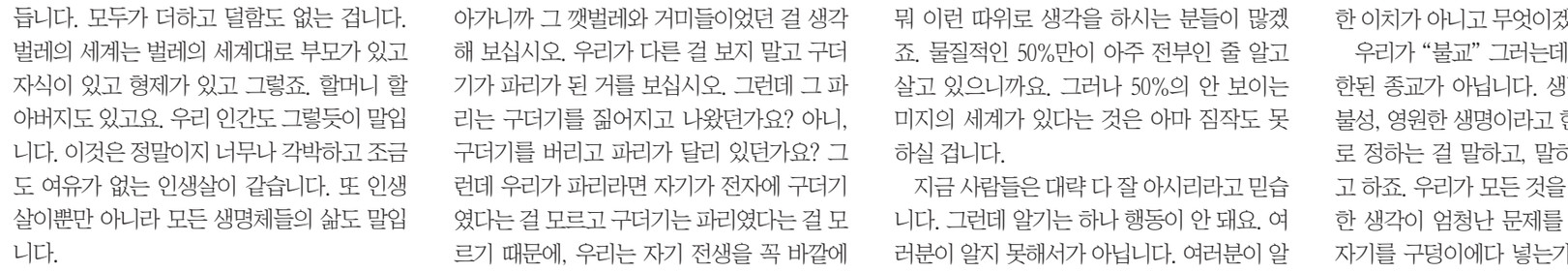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9일 국내 지원법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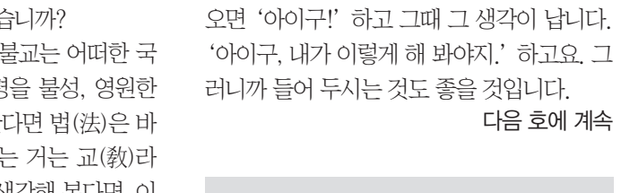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다리에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며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행복한 길을 따라요

죽도록 힘들면 그만 두는 것도 괜찮아요. 죽도록 힘들면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죽도록 힘들면 계속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도록 힘들면 같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도록 힘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죽도록 힘들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때로는 그만 하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좋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머리와 가슴이 싸울 때 머리가 이기면 안 돼요. 가슴을 따라요. 아무리 따져도 가슴은 알아요.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요. 가슴의 조용한 끌림을 따라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하면 몸이 아파요.

행복한 길을 따라요. Follow your bliss. 자연스럽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을 길이 있어요.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고 따라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㉒ 룩소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집트, 찬란한 문명의 꽃봉오리

아스완을 떠나 나일강을 옆에 끼고 내달려 룩소르로 향한다. 중간의 검문소에서 멋진 터번을 두른 이집트 현지인 할아버지와 빵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마치 이집트 신화 속에서 방금 나온 듯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마치 외계인과 같았을 것이다.

한참을 달리다 휴게소에서 쉬는데 뒤란으로 가니 토기에 콩죽이 잘 익어가고 있다. 현지인 기사와 가이드랑 함께 그 맛있는 콩죽에 빵을 곁들여 최고의 점심을 함께하였다. 역시 여행의 묘미는 현지인의 맛집 탐방에 있다. 토기에 물을 받아 자연냉각시키는 일종의 정수기 물맛도 압권이다. 이는 판매용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슬람식 급수공덕 기부의 일환이다.

드디어 옛날 '테베(Tebe)'라는 지명으로 유명한 룩소르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경주 서라벌과 같은 천년고도로 아문을 모시는 카르나크 신전과 완가의 계곡에 핫셉수트 장례전과 멤논의 석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보고나면 그리스, 로마의 유적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특히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잇는 대로 양편에 위치한 양머리를 한 스핑크스 석상이 압권이다. 만약 그 옛날 전성기에 이곳에 와 봤다면 엄청난 규모와 정교한 조각, 그리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황홀한 행복의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어둠이 내리면 룩소르 신전에 환상적인 빛과 음향의 쇼가 펼쳐진다. 나일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고 신전 앞으로는 고대에서 방금 온 듯 한 당나귀를 탄 소년이 오래된 미래를 거닌다. 예전에 룩소르에 올 적마다 '만두'라는 이집트 청년의 한국식당에 들렸다. 30대에 대머리 총각인 그는 이효리 사진을 지갑에 넣어다니며 자기 애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그 한국식당과 만두라는 청년이 잘 있는지, 장가는 갔는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룩소르에서 밤기차를 타고 수도인 카이로를 향해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희미한 나일강을 따라 북상하며 밤하늘의 휘황한 별빛과 함께한다. 그 가운데 홀로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 나는 한줄기 바람같이 떠도는 방랑자가 된 느낌이다. 그렇게 꼬박 9시간의 밤기차를 타고 새벽녘에 카이로에 다다랐다.

룩소르서 카르나르 신전 등 유적 순례
이집트고고학博 유물 보며 '죽음' 성찰

카이로에서는 나일강변을 거닐다가 이집트 고고학박물관을 관람했다. 이곳은 60만점 이상의 유물을 간직한 세계 최고의 고고학 박물관으로 인류문화의 정수이자 보고다. 특히 투탕카멘 황금마스크 등은 죽음에 관한 대서사시 한 편에 가깝다. 다만 죽음과 영생에 몰두한 나머지 삶과 사랑을 등한시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박물관 앞은 재스민 혁명의 요람으로 유명한 타흐리르(해방) 광장이다. 이집트 여행 시 숙소가 근처에 있어 자주 오고가는 곳이지만 지금은 걸을 수 없다고 한다. 저 뒷골목에는 밀로 만든 주식인 일명 '걸레빵'과 콩죽을 파는 노점과 이집트 커피와 시샤라는 물담배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할게다. 특히 근처의 '코사리'라는 일명 '꿀꿀이 죽' 같은 음식 체인점이 있어 함께 여행중인 가이드랑 관광경찰을 꼬드겨 박물관에 배달을 시켜다가 맛있게 먹었다.



이집트고고학박물관 전경 스케치.

다음은 카이로 외곽의 쓰레기장에 자리한 곱트교회 거주지역과 그들이 세운 모카탐 동굴교회를 방문하였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오늘날까지 온갖 멸시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지켜오고 있다. 실로 눈물겹고 아름다운 그들의 희생과 순교자적 열정에 찬탄과 경외를 금치 못하겠다.

모카탐 동굴앞에서 만난 어느 할아버지는 자신의 팔에 새긴 십자가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은 기독교 신자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리고 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밀빵 한 덩어리와 음식을 낯선 이방인 스님에게 건넨다. 나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작고 소중한 빵과 음식을 눈물로 곱씹으며 함께 먹었다.

시내의 곱트교회 유적지를 둘러보고는 입구의 작은 서점에 들어갔다. 마음씨 좋은 이슬람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마침 점심으로 '코사리'를 먹다가 낯선 이방인에게도 애써 권한다. 내가 본시 넉살이 워낙 좋은지라 '마미(mommy)'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마치 백년손님 인양 당당히 얻어먹었다.

다음날 우린 이집트의 항구도시이자 한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 이곳은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왕궁이 있었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가 있던 유서 깊은 곳이다. 무엇보다 지중해의 코발트빛 바다와 해변으로 유명한데, 특히 파피루스를 형상화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단연 압권이다.

파로스 등대가 있던 자리에 요새가 들어서 있다. 해변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가끔 이슬람 신학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그들과 더불어 한바탕 토론을 해보고 싶다. 아쉬운 것은 나일강변의 사막에 산재한 초기 카톨릭 사막교부 수행자들의 은수자 토굴 등의 유적을 보지 못한 것이다.

나일강은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의 진자라는 곳에서 발원해 6400km의 머나먼 여정을 시작해 이곳 알렉산드리아에 이르러 지중해로 흐른다. 흥미로운 것은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에서 발원해 이집트 문명을 꽃피우며 위로 흘러가다가 마침내 이곳에서 바다로 흘러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곳을 떠난다. 나일강과 알렉산드리아 항구에도 작별을 고한다. 아듀! 이집트! 아듀! 나일강! 아듀! 푸른 에게해여!

〈조계종 前 교육부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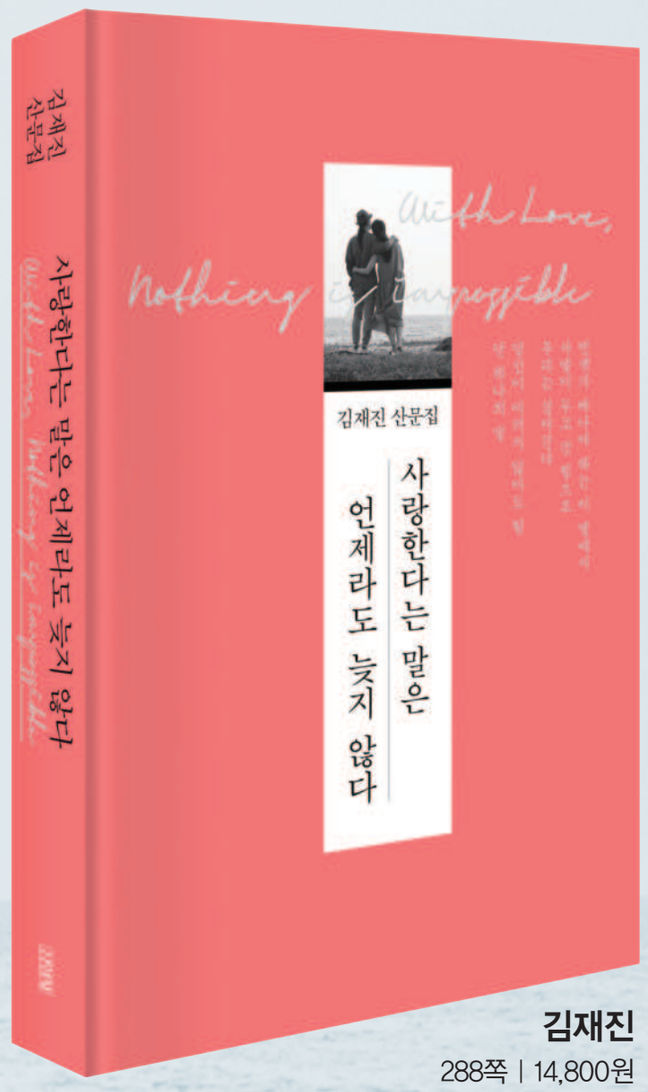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김재진 시인 6년 만의 신작 산문집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화제의 신간



김재진
288쪽 | 14,800원

With Love, Nothing is Impossible

당신이 아끼지 않아도 될 단 하나의 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사랑과 인생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낸 성찰과 위안



©자닌토

시인은 끊임없이 절대적 고독을 얘기하는데 아프거나 슬프지 않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결을 가진 화법이 겨울 거울 같은 명징함의 투명함을 더해준다. 희로애락의 음계들을 얼마나 오르내렸을까? "인생은 뭔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비기秘技를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었을까? **육현주** '꽃 책으로 피다' 대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문장처럼 이 책은 삶을 우려낸 주옥같은 지침서다. 내심, 이별의 슬픔을 슬픔으로 박박 문질러 닦으면 외려, 우리네 엄마의 별은 더 빛날지도 모른다. 삶이 시이고, 올곧은 시인의 표상이신 천재 화가 사백님의 평강을 기원한다. **김원식** 시인

시인의 산문은 한 편 한 편 음미하기 좋아 나는 병아리처럼 이야기 하나 읽고 하늘 바라보고, 또 하나 읽고 물을 바라봅니다. 음미하기 좋다는 것은 여운이 길다는 것과 같지요. 시인의 구도적인 평소 삶이 말갛게 드러나는 산문입니다. 마음에 비애가 찰랑이는 어떤 날엔 이 책이 공감과 위로의 동지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최소진** 작가

이 책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그 말을 얼마나 입안에서 뭉개며 지냈는지… 우리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커크 네이버 인플루언서

*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된 독후감입니다.

김재진 시인, 소설가. 여러 편의 소설과 시가 당선되며 등단한 뒤 40여 년간 글을 써왔다. 젊은 시절 방송사 피디로 일했고, 오래 병석에 누워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가 벽에 입을 그려달라고 청한 것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 번의 전시회를 연 화가이기도 하다.